

중 학교

2009개정 교육과정

서울특별시교육감 인정
중교-31-025-01-15

시민단체추천도서

2014.10.20

2014-001



태극기 · 무궁화



태극기 · 무궁화 선양회

〈교과서 물려주기 기록표〉

연도	교과서 사용자				상태
	학년	반	번호	이름	

※ 상태 표기 예시 : 매우 좋음, 좋음, 보통, 나쁨



태극기·무궁화



태극기·무궁화 선양회

차례



태극기



무궁화

태극기와 무궁화랑 함께 알아보는 태극기 · 무궁화

I. 대한민국 바로알기 · 5

국가의 의무
민주주의의 정신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대한민국
충절
효도
예절
세속오계
무궁화의 정신

II. 태극기 바로알기 · 15

태극기는 겨레의 얼

1. 태극기의 유래 · 18

태극문양에서 태어난 태극기
대한제국 이전에 만들어진 태극기
대한제국 시기의 태극기
항일 독립운동 시기의 태극기
3.1 독립운동 시기의 태극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태극기
한국전쟁 시기의 태극기
소중하게 간직했던 태극기
애국열사가 남긴 말

2. 태극기에 담긴 뜻 · 28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태극기
태극기 그리는 방법
태극기에 담겨진 뜻
대한민국국기법 제정 이유
깃대와 깃봉의 제작
다민족 포용정신을 담고 있는 태극기

3. 태극기는 민족의 열정과 희망 · 36

광복의 믿을 준 태극기
애국지사 지켜준 태극기
다시 휘날리는 태극기

4. 국기에 대한 의례 · 40

국기에 대한 경례 방법
국기에 대한 맹세 되새기기
국기를 게양하는 날
국기 게양하는 기쁜 날과 슬픈 날
국기 게양하는 곳
건물에서의 국기 게양하는 방법
경우에 따른 국기 및 다른 기의 동시 게양 위치

III. 무궁화 바로알기 · 51

무궁화는 순결한 나라꽃

1. 나라꽃 무궁화 · 54

무궁화 피고 지는 군자의 나라
우리 민족과 늘 함께 있었던 무궁화
무궁화에 담겨 있는 뜻

2. 나라꽃 무궁화운동 · 58

일제에 의한 무궁화 수난과 학대
독립운동가 남궁억 선생의 무궁화운동

남궁억 선생과 무궁화 자수본
아끼고 사랑해야 할 무궁화
무궁화 예찬시
무궁화 동요

3. 무궁화의 생김새와 자생지·70

무궁화의 생김새
꽃, 잎, 씨앗 형태와 무궁화의 하루
세계 속에 핀 무궁화의 이로운 점
무궁화의 품종과 잘 자라는 곳

4. 다시 피어나는 무궁화·78

무궁화 날과 무궁화 박물관
무궁화 동산과 무궁화 축제 및 선양 행사

5. 무궁화 가꾸기·82

씨앗으로 가꾸기
꺾꽂이로 가꾸기 / 무궁화 화분 만들기

IV. 생활 속 태극기와 무궁화·87

국가 상징과 국민 통합에 활용되는 태극기·무궁화

1. 대한민국의 상징, 그리고 아리랑과 한글·90

국가 상징으로서의 태극기와 무궁화
대한민국의 국호, 연호, 정부기
대한민국의 나라문장, 국새
애국가는 민중이 부르던 노래, 악보와 가사
민족의 노래 아리랑의 노랫말과 영문 아리랑 악보
배우기 쉽고 말하기 쉬운 한글
기관, 단체 및 가정과 기념일 등의 태극기와 무궁화

2. 태극기, 애국가, 무궁화의 활용·106

애국심과 단결의 구심점
생활 속에 친근한 태극기와 무궁화의 노래
작품 속의 태극기와 무궁화
책임을 다하며 나라사랑하는 국민

3. 내가 그린 태극기와 무궁화·116

우리와 함께하는 태극기 무궁화
태극기 만들기 / 태극기 채색하기
씩씩한 태극기가 되도록 그려보고 느낌과 생각을 글로 적어보기①
무궁화 그리기 / 무궁화 채색하기 /
깜찍한 무궁이가 되도록 그려보고 느낌과 생각을 글로 적어보기②

V. 독도 바로알기·127

독도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
독도의 사계절과 동 식물
독도의 주변은 황금어장
독도의 자연자원
독도를 지킨 사람들
독도의 옛 지명
독도는 침략의 첫 희생물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근거
독도는 우리땅, 대한민국 영토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일본
독도 예찬시
우리땅 독도
독도 그리기





I . 대한민국 바로알기





국가의 의무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국민의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

오늘날 세계에는 220여 개의 국가가 있다.

국가란 국민, 영토, 주권의 3요소로 구성되는데 정부라는 통치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한 나라 또는 여러 나라가 정당한 원리 없이 다른 나라의 국내 문제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국가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 ①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 ②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③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 ④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 ⑤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 ⑥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기 때문에 국가 간에 분쟁이나 갈등이 그치지 않고 있다.



민주주의의 정신

민주시민은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민주국가는 민주주의의 정신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민주주의의 정신은

첫째, 평등의 정신이다. 조직체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가치와 의사가 균등하게 존중되어야 한다.

둘째, 다수의 의견을 존중한다. 다수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타협의 정신이다. 자신을 양보하고 상대방을 설득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을 추구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넷째, 참여의 정신이다.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논의하고 협력해야 한다.

다섯째, 합의와 결정에 따른다.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의견이 결정 되더라도 그 의견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민주국가에서 공직자는 특권의식을 버려야 하며, 부정부패에서 벗어나야 한다.

민주시민은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정치인과 공직자 그리고 종교인 등에 대해 감시하고 불의와 부정부패에 대한 고발정신도 필요하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비롯된다.

고려를 이어 건국한 조선은 1882년 국호를 대조선으로 격상시켰고, 1894년에는 개국기년을 사용했다. 1896년에는 대조선의 년호를 건양으로 했고 1897년 대조선은 대한제국으로 이어지면서 년호를 광무로 바꾼다. 1910년 대한제국은 일제에 강제 병합되면서 국권을 상실한다.

1919년 애국지사들이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제국(1897-1910)을 계승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1919년의 3.1독립운동이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무원, 참의원, 사법부의 삼권분립 형태를 구비한 민주공화제를 채택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제에 항거하면서 빼앗긴 조국의 땅을 다시 찾겠다는 독립의지로 일관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만주와 연해주, 하와이와 미국 본토, 중국 대륙 등에서 펼쳤던 대한민국 독립운동은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전개되었던 것이다.



충 절

오늘날의 충절이란 법을 잘 지키고,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을 뜻한다.

충이란 충심을 잡는다는 두 글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졌는데, 충이란 옛날에는 ‘신하나 백성이 임금이나 나라에 몸과 마음을 바치는 도리’라는 의미로 쓰여진 말이다. 조금의 속임이나 허식 없이 자기의 온 정성을 기울인다는 것으로서 인간의 모든 행위의 근본을 이 충과 믿음 즉, ‘忠信(충신)’이라 했다.

역사적으로 충의의 선비들은 대부분이 고난을 무릅쓰고 순사하였고 편안히 일생을 마친 경우가 드물다. 그것은 두 왕조를 섬기지 않는다[不(불)事(사)二(이)君(군)]는 충절이나, 자기 희생을 통해 얻어지는 경지였으나, 개인의 자아의식을 강조하는 현대의 도덕적 가치 기준에서 볼 때 전통의 충절정신과 행적은 현대인에게 괴리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

현대국가는 왕국이 아닌 민주국가이기 때문이다.

충이라는 글자가, 中(중)과 心(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충이 바로 속마음, 주체적 인격의 자리라는 뜻이다. 따라서 충과 충성을 단순히, 전통적으로 충을 강조하고 윤리 규범으로 확립해 왔던 것과는 달리, 충이라는 개념을 본질적으로는 인간으로서의 자기발견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국가와 나, 부모나 가족, 이웃나라와 나와의 관계에서 충의 의미를 찾아내고 나와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해야 하는 것이다.

현대적 의미에서의 충은 헌법이 정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법과 질서에 따라 직분에 맞게 잘 사는 것을 의미한다.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국가와 나의 존재가 일체화되는 데까지 자신의 존재를 확대할 때, 본질적 의미에서의 충이 실현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효도

孝(효)란 자기 생명의 근원을 경애하는 것이다.

孝(효) 자는 老(노) 자와 子(자) 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합이문자로서 연하자가 연장자를 받든다는 데서 유래했다. 효(孝)는 노(老)의 획 줄임에다가 자(子)를 합친 글자로서, 아들이 늙은이를 업고 있는 모양을 본뜬 글자이다. 이와 같이 효의 어원을 살펴보더라도 효(孝)는 아버지와 자녀 간에 형성되는 원초적인 관계를 규율하는 질서로서, 곧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孝(효)는 자기 생명의 근원을 경애하는 것이다.

孝(효)는 자기의 생명이 어디서 나왔는가 라는 물음에서 출발하여 자기의 생명의 뿌리인 조상을 숭배하는 데까지 발전했다. 자기를 태어나게 한 조상, 그리고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효인 것이다.

효도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부모님을 섬기는 일이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하늘이 맺어준 것이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인륜의 근간이라고 한다.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도 효도의 길인 것이다.

효의 근본은 부모를 섬김에 있다.

자신의 몸을 건강하게 함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첫 걸음이다. 건강은 자신의 행복을 마련하는 기초이기도 하다. 따라서 자식으로서 건강하다는 것은 기본적인 효라 할 수 있다. 자신의 몸을 바르게하여 학생으로서 과업에 전념함으로써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가 더불어 산다. 따라서 먼저 이웃을 사랑하고 존경할 줄 알아야 한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신의와 예절을 지키고 남에게 후덕하고 친절 명랑해야 한다. 그에 앞서 형제간에 우애있게 지내고 가족 간에는 화평하며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고 행복하게 해드림이 효도하는 길이 되는 것이다.



예절

예절이란 사람의 행동을 규제하는 규칙과 관습을 체계화한 것이다.

예절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치르는 중요한 일에서부터 이웃과 교제하는 데까지 생활 전반에 걸쳐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예의 특징을 살펴보면

- ① 관혼상제 치르기 ② 실천하는 행동규범, 사람들 사이의 조화
- ③ 질서와 순서 ④ 정당하고 적합하다는 원리이다.

예절은 도덕성을 실천하기 위한 과제이며 목표이다.

예절은 강제로 실천하도록 강제할 수 없지만 예절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사회로부터 소외당할 수 있다.

예절은 인간성품의 부정적인 부분을 제어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오늘날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예절은 사치와 낭비를 극복해야 하며 질서를 존중해야 하며 사회생활에서 절제와 양보의 미덕을 보여야 하는 것이다.

예를 갖춘 사람은 효를 행할 줄 안다. 효에 이어 나라에 충성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세속오계

세속오계는 신라의 융성에 기여한 화랑도 정신의 밑바탕을 이루었다.

사군이충 事君以忠	충성으로 임금을 섬긴다. (충)
사친이효 事親以孝	효도로 아버지를 섬긴다. (효)
교우이신 交友以信	믿음으로 벗을 사귄다. (신의)
임전무퇴 臨戰無退	전쟁에 임해서 물러나지 않는다. (용맹)
살생유택 殺生有擇	생물을 죽일 때 가려야 한다. (자비)

세속오계는 유교의 충과 효를 강조하고 있다.

신라 사람들의 강한 공동체 의식을 알 수 있다.

철저한 의리정신과 숭고한 희생정신, 그리고 생명을 존중하는 정신을 나타내고 있다.

세속오계는 정의감에 바탕을 둔 의리사상, 천손이라는 금지와 경천, 숭조, 애인사상 그리고 희생정신을 중심으로 나라를 지키는 공동체 의식을 고취했다. 이 정신은 우리 민족의 의연한 민족성을 이어오는데 기본이 되었다.



화랑의 교육모습



삼국통일의 주역인
화랑 김유신 영정



경상북도 청도 호거산 운문사
원광법사 세속오계 벽화



무궁화의 정신

무궁화의 핵심가치는 사랑입니다.

옛부터 우리나라는 무궁화 꽃이 많은 나라라고 하여 근화향이라고 했으며 무궁화를 닮은 군자들이 사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학자들은 무궁화의 위대한 특성을 칭송했습니다.

무궁화의 특성은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이 되어야 할 핵심가치 중 으뜸인 사랑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근본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첫째로 자신을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합니다. 중요한 존재임을 알기에 시기도 질투도 하지 않습니다.

둘째로는 내가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이듯이 다른 사람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바라봅니다.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 주고 잘하는 점을 기쁨으로 여기며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무궁화가 한 그루에서 100일 동안 매일 새롭게 피어 풍성한 꽃을 피우듯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이 넉넉하다고 여깁니다. 풍성한 마음을 지니고 있으며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풍성한 마음은 풍성한 삶으로 이어지며 오직 자신이 세운 비전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신과 경쟁하여 약점을 극복하고 비전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들의 삶은 풍성한 열매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넷째로 무궁화가 인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약재로 선사하듯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의 강점과 재능을 사회와 국가를 위해 나아가 온 인류를 위해 공헌합니다. 공헌과 나눔은 선순환이 되어 다시 나에게 몇 배로 돌아오게 됩니다. 선한 일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그 혜택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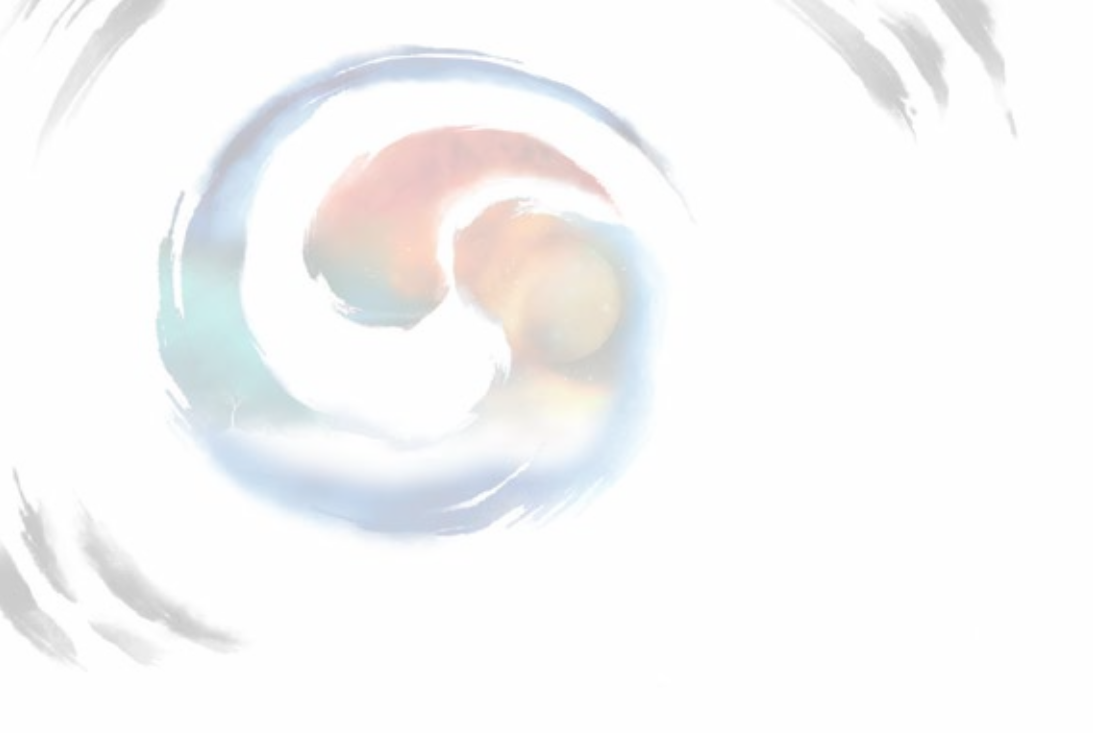
Ⅱ. 태극기 바로알기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국기
태극기에 대해 알아볼까요?

태극기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징물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우리 민족과
함께 해 왔습니다.





“아, 대박 촌스러워. 검정색 작대기는 왜 저리도 많이 그어 났대!”

개천절을 맞아 아빠와 태극기를 달던 혜진이가 종알거립니다.

“그렇지 않아. 태극기가 얼마나 대단한 뜻을 담고 있는 줄 알아?”

아빠는 혜진이에게 태극기에 담긴 뜻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빠의 설명을 듣고 난 혜진이 눈이 동그래집니다.

“아, 태극기에 그렇게 깊은 뜻이 담겨 있었어요?”

알고 보니 태극기가 새롭게 보여요.”

아빠와 혜진이는 바람에 펄럭이는 태극기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태극기는 겨레의 얼

다시 살아난 태극기, 모두 하나되어 지키자



2009년 5월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진관사에서
독립신문과 함께 발견된 태극기

태극기

一

三角山 마루에
새벽빛 비칠제
네 보았냐 보아
그리던 太極旗를
네가 보았나냐
죽은줄 알았던
우리 太極旗를
오늘 다시 보았네
自由의 바람에
太極旗 날리네
二千萬 同胞야
萬歲를 불러라
다시산 太極旗를 爲해
萬歲萬歲
다시산 大韓國

二

불근빛 푸른빛
둥글게 엉키어
태극을 일웠네
피와 힘 自由平等
엉키어 일웠네
우리 太極일세
乾三連坎中連
坤三絶離中絶
東西南北上下
천하에 펼치라
太極旗 榮光이
世界에 빛나게
國民아 소래를 모도다
萬歲 萬歲

三

大韓國萬萬歲
갑옷을 넘어라
방패를 들어라
늑은이 절문이
머시마나 가시나
하나이 되어라
太極旗 지켜라
貴하고 貴한 國기
원世界 百姓이
다모혀 들어도
우리의 太極旗
건드리지 못하리
大韓사람들이 일어나
나가나가
太極旗를 지켜
大韓나라 지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발간한 독립신문(1919년 11월 27일 자)에 실린 〈태극기〉시

1. 태극기의 유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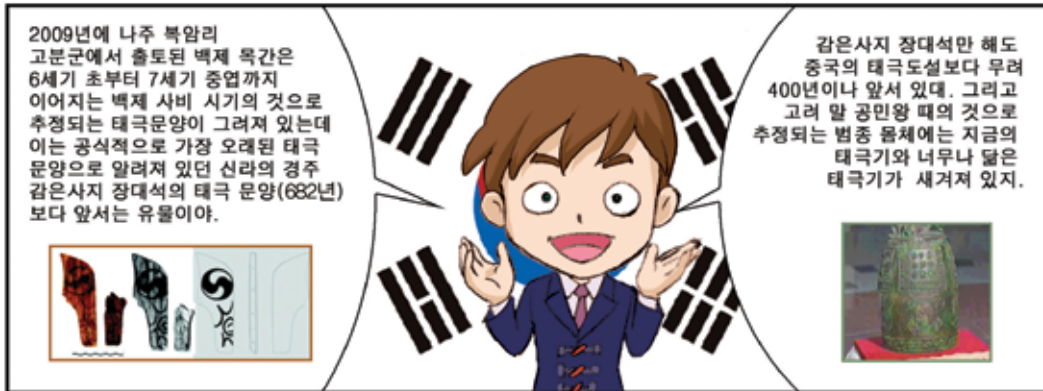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태극기에 대해 보고 듣고 배워 왔다.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태극기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태극기의 태극문양과 건곤감리가 우리나라 국기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처음부터 태극기는 지금의 모습이었을까? 이제부터 태극기와 함께 태극기 이야기 속으로 떠나볼까?



1. 태극기 기원과 만들어진 역사 알기
2. 초기 태극기의 다양한 모습과 변천 과정 알기



태극문양에서 태어난 태극기





대한제국 이전에 만들어진 태극기

세계 각국은 근대국가로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국기를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우리나라도 1876년 이후 외국과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국기를 제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 국기 창안을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태극기는 1882년(고종 19년) 5월 22일 조선과 미국이 통상 조약을 맺을 때 처음 사용했으며, 이 태극기는 고종황제 때 역관 이응준이 만들었습니다. 같은 해 9월 박영효는 조선을 대표하는 사신으로 일본에 가던 중 배 위에서 태극기를 만들어 사용했으며, 같은 해 1882년 10월 3일 조정에 이 사실을 보고하자, 고종황제는 다음해인 1883년 3월 6일, '태극 · 4괘 도안'의 '태극기'를 조선의 국기로 공식 선포하여 온 세상에 널리 알렸습니다.



조미수호통상조약 당시 조선의
역관이었던 이응준이 만든 태극기
1882년 5월



박영효가 조선의 제3차 수신사로
임명되어 일본으로 가면서 만든 태극기
1882년 9월



고종이 조선의 외교 고문을 지낸
미국인 데니에게 하사한 태극기
1890년 5월



대한제국 시기의 태극기

1897년 10월 12일 조선은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고치고 내외에 선포하였습니다.

대한제국의 성립은 조선이 자주독립국임을 천명한 것이며, 자주독립국의 실체를 세계에 알린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대한제국은 1910년 일본에 의해 강제 합병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명신여학교 태극기

순헌황귀비 엄씨가 1906년 5월 설립한 명신여학교(明新女學校)의 설립 초기 자료인 태극기. 현판, 완문 3점의 유물로 교육사적 가치가 큰 유물이다. 이 태극기는 '明新女學校'라는 묵서와 함께 4괘와 태극문양을 틀을 사용하여 찍어낸 기법으로 제작한 것이다. 교육현장에서 발견된 최초의 태극기라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크다.

등록문화재 제468호
서울숙명여자고등학교 소장



불원복 태극기

대한제국 시기 전남 구례 일대에서 활약한 의병장 고광순(1848~1907)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태극기. 머지않아 국권을 회복한다는 뜻의 "不遠復" 글자가 수놓아져 있어 항일 독립운동과 관련하여 사료적 가치가 있다.

등록문화재 제394호
독립기념관 소장



동덕여자의숙 태극기

1908년 동덕여자의숙 개교와 함께 교정에 게양되었던 태극기. 옷감재로나 바느질 법 등에서 시대성을 볼 수 있고 100년 동안 학교의 정신적 지주로서의 역할을 했다.

등록문화재 제384호
동덕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항일 독립운동 시기의 태극기

일제의 침략에 맞서서 펼쳐진 독립운동은 계몽운동과 의병운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3.1운동 이후 크게 성장한 독립군들은 만주 지역에서 국내로 진공해 일제에 커다란 타격을 입혔습니다.

미주 지역에서 결성된 독립운동 단체들은 대한민국 독립의 당위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국제 외교를 통한 독립운동을 활발하게 펼쳤습니다.



대한독립만세 태극기

가늘고 긴 삼각형 형태의 깃발 속에 제작된 태극기. 미국에서 광복 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미국에서의 독립운동 관련 태극기 변천사 연구의 귀중한 자료.

등록문화재 제387호
독립기념관 소장



월도프아스토리아 호텔 태극기

1942년 이승만 박사가 뉴욕 월도프아스토리아 호텔에서 한국독립 만찬회를 열 때 사용했다고 알려진 태극기. 미국에서의 태극기 제작 및 항일 독립운동사의 연구 자료로서 가치가 크다.

등록문화재 제381호
헌정기념관 소장



한국 광복군 서명문 태극기

광복군 제3지대 2구대에서 활동하던 문웅명이 간직했던 태극기. 바탕에 결의를 다지는 글귀와 서명이 빼곡하고 나라사랑과 자유에 대한 굳건한 열망이 담겨있다.

등록문화재 제389호
독립기념관 소장



3.1 독립운동 시기의 태극기

3.1 독립운동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켜 한민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했으며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3.1 독립운동은 민족정신에 새로운 자각과 힘을 주어 민족자립의 기초를 다지게 했습니다.

3.1 독립운동은 자유평등, 민주주의, 인도주의를 주창하는 새로운 사상을 출현시켰습니다.



태극기 목판

3.1운동 때 태극기를 찍어내기 위해 4괘와 태극문양을 새긴 목판으로 희귀할 뿐 아니라 당시 제작기법과 상황을 헤아릴 수 있는 것으로서 사료적 가치가 크다.

등록문화재 제385호
독립기념관 소장



진관사 소장 태극기

2009년 5월 서울시 은평구 소재 진관사(津寬寺) 칠성각(七星閣) 해체 보수과정에서 태극기와 독립신문 등 21점의 유물이 발견되었다.
1919년 3.1운동을 기점으로 진관사에서 활동하던 스님이 독립운동에 가담하며 확보한 자료로 추정된다.

등록문화재 제458호
진관사 소장



남상락 자수 태극기

독립운동가 남상락(1892~1943) 선생이 1919년 4월 4일 독립만세 운동에 사용하기 위하여 만든 태극기. 전체가 손바느질로 제작된 희귀한 태극기.

등록문화재 제386호
독립기념관 소장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태극기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운동 직후 1919년 4월 13일 중국 상해에서 수립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전 민족의 의지와 이념적 기반 위에서 설립된 정부조직이었고, 주권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독립운동의 통할기구로서의 역할을 지니고 탄생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광복의 모태가 되었고 1948년 8월 15일 건국된 대한민국의 정신적, 사상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태극기

1923년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정원에 걸렸던 것으로 전해지는 태극기로, 임시정부 국무위원을 지낸 김봉준이 부인과 함께 제작한 태극기이다.

등록문화재 제395호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소장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태극기 ①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정원 의장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 등을 역임한 김봉준(金朋濬, 1888~1950) 일가가 보관하고 있던 태극기. 일제 강점기 항일운동사의 국가 표상적인 맥을 함께 할 뿐 아니라 국기 변천사를 알 수 있어 역사적 가치가 크다.

등록문화재 제395-2호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소장



김구 서명문 태극기

대한민국 임시정부 김구(1876~1949) 주석이 1941년에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매우사(梅雨絲, 미우스 오그) 신부에게 준 태극기. 바탕에 광복군에 대한 우리 동포들의 지원을 당부한 김구 주석 친필 묵서가 있다.

등록문화재 제388호
독립기념관 소장



한국전쟁 시기의 태극기

한국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북위 38도선 전 지역에 걸쳐 북한군이 대한민국을 불법 남침함으로써 일어난 한반도의 전쟁입니다.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휴전협정이 체결됨으로써 한국전쟁은 휴전으로 매듭지어 졌습니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고, 산업시설의 대부분이 파괴됨으로써 남북한 모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의 분단은 고착되었고, 아직까지도 휴전선으로 분리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철희 사변폭발 태극기

한국전쟁 당시 특무상사 이철희의 태극기. 국군의 애국정신과 투철한 군인정신이 생생하게 표출되어 있고, 치열했던 진군경로 등이 기록되어 있어 한국전쟁사를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

등록문화재 제393호
독립기념관 소장



경주학도병 서명문 태극기

한국전쟁 당시 경주에서 자원한 학병 19용사 등이 출정 전에 태극기에 각자 소감을 적고 서명 한 태극기로 학도병들의 굳은 의지와 각오가 표현되어 있다.

등록문화재 제391호
독립기념관 소장



유관중 부대원 태극기

유관중 소위가 1950년 10월 초 호남지구 진격 작전 시 사용한 태극기. 바탕에 무운장구를 염원하는 글귀와 서명, 지명이 기록되어 있어 당시 전투 경로 등을 연구할 수 있다.

등록문화재 제390호
독립기념관 소장



소중하게 간직했던 태극기

‘선교장 태극기’, ‘건국법정대학 학도병 서명문 태극기’, ‘미국 해병대원 버스비어 기증 태극기’는 오랜 세월 동안 소중하게 간직되어 온 태극기이다.

‘선교장 태극기’는 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낸 것으로 역사성은 물론 희귀성이 돋보이는 우리 문화유산이다.



강릉 선교장 소장 태극기

강릉지방 청소년을 대상으로 근대지식 보급과 인재 양성 목적으로 설립한 동진학교에서 민족의 정체성 상징이었던 태극기를 순수 제작하여 사용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태극기이다.

등록문화재 제648호
선교장 소장



건국법정대학 학도병
서명문 태극기

1950년 9월 1일 제3차 학도병 지원시 부산의 건국법정대학 법률과 학생이 주축이 되어 서명한 태극기로, 학도병들이 조국을 위해 몸 바칠 것을 맹세하고 생사를 넘나드는 전쟁터에서도 고이 간직해 온 태극기이다.

등록문화재 제392호
독립기념관 소장



미국 해병대원
버스비어(A.W. Busbea) 기증 태극기

미국 해병대 출신 버스비어(A. W. Busbea)가 한국전쟁 당시 우리시민에게 받아 전쟁기간 내내 군용트럭에 꽂고 다니다 귀국 시 갖고 돌아가 보관한 태극기.

등록문화재 제383호
하남역사박물관 소장



애국열사가 남긴 말

열사들의 나라 사랑과 희생정신을 모두 함께 되새겨 보자.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 백범 김구 -

“나는 우리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 가장 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옆에 묻어두었다가 나라를 되찾거든 고국으로 옮겨다오.

나는 천국에 가셔도 마땅히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쓸 것이다.

대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 안중근 -

“나는 밥을 먹어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잠을 자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해 왔다.

이것은 내 목숨이 없어질 때까지 변함이 없을 것이다.” - 도산 안창호 -

“내 손톱이 빠져 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 유관순 -

2. 태극기에 담긴 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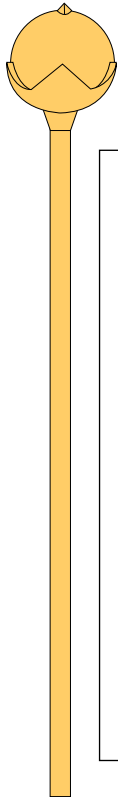
어느 날 외국인을 만났다. 외국인은 나에게 대한민국 국기 이름이 뭐냐고 묻는다. 또한 국기에 담긴 뜻을 설명해 줄 것을 부탁했다. 생각해 보니 국경일마다 거리나 가정에 내 거는 태극기를 자주 보아 왔지만, 만약 외국인이 나에게 태극기에 대해 설명해 줄 것을 부탁한다면 나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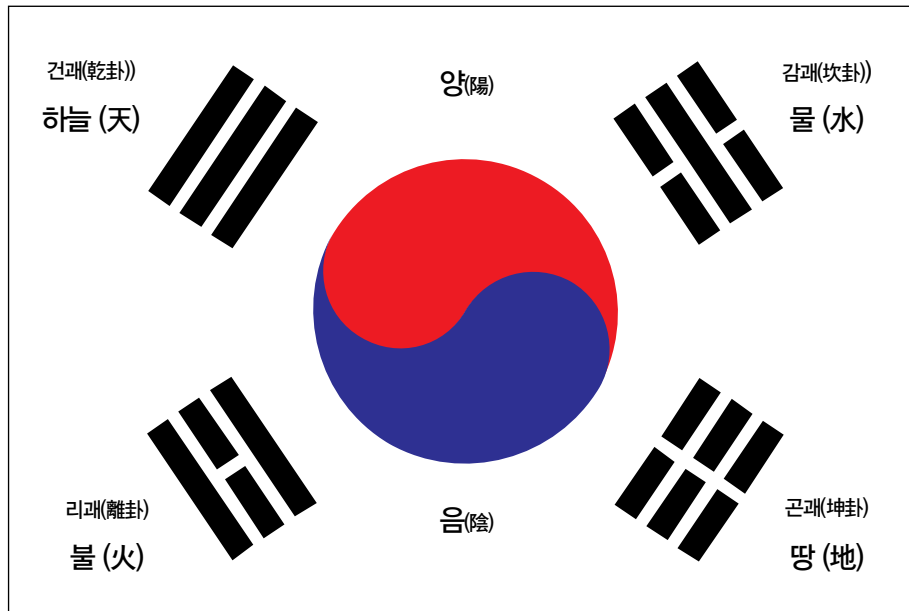
1. 태극기 그리는 법을 익히기
2. 태극기에 담긴 뜻을 알고 설명하기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태극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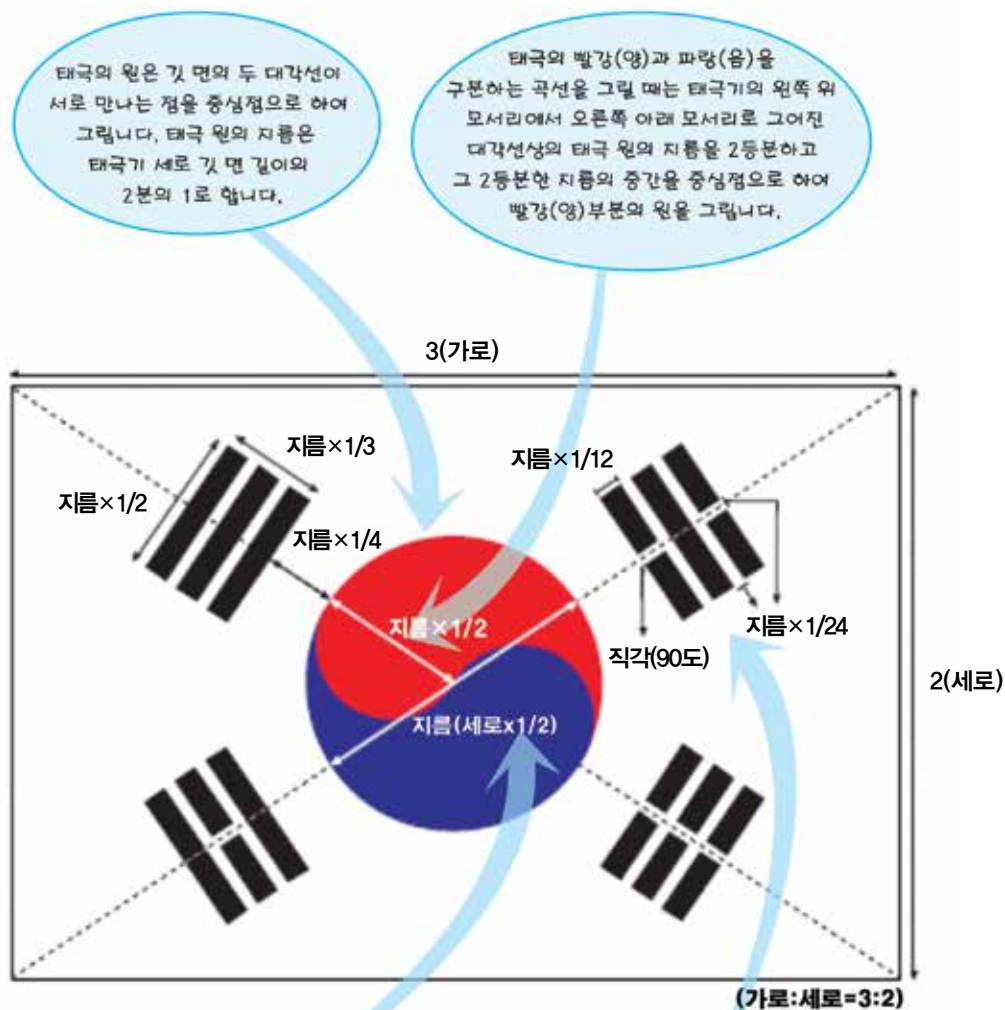
(국기 기봉 : 무궁화가 피기 전의 꽃봉오리를 나타냄)



한동안 국기를 만드는 사람마다 방법이나 모양이 달라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2년 6월 29일 국기 만드는 법을 통일하기 위하여 ‘국기 통일 양식’을 정했으나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섰고, 1949년 10월 15일 오늘날의 ‘국기제작법’을 정해서 발표하였습니다.



태극기 그리는 방법





태극기에 담겨진 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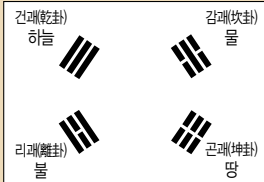
[흰색 바탕]

태극기의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전통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고 있다.



[태극]

태극 문양은 음(陰: 파랑)과 양(陽: 빨강)의 조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주 만물이 음양의 상호 작용으로 생성하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형상화 한 것이다.



[건곤감리]

네 모서리의 4괘는 음과 양이 서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효(爻: 음 --, 양 —)의 조합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건괘(乾卦)는 하늘을, 곤괘(坤卦)는 땅을, 감괘(坎卦)는 물을, 리괘(離卦)는 불을 상징한다.

태극 문양은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생활 속에서 즐겨 사용하던 것이기도 합니다. 태극기는 우주와 더불어 끝없이 창조하면서 번영하길 바라는 우리 민족의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국기법 제정 이유

「대한민국국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종전에 개별적으로 제정·시행되고 있는 국기에 관한 각종 훈령 등을 정비하여 통합·체계화 함으로써 국기의 올바른 게양·관리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선양활동을 추진하여 국기에 대한 존경심과 애국심을 고양하려는 것이다.

1. 주요내용

가. 국기의 세부적 게양방법을 보완하여 정함 (제3조, 제5조부터 제12조까지)

- 1) 국기를 게양하는 건물의 규모에 맞추어 국기게양대의 규격을 정하고, 여러개의 게양대를 함께 설치할 경우의 게양대 간 간격 등을 정함.
- 2) 조기는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가 짧아 조기로 게양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기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내려달도록 함.
- 3) 국기를 매일 24시간 게양하는 경우 야간게양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각 기관 청사의 주된 게양대에는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 4) 행사장에 실물 국기를 게양하지 않은 채 발광화면이나 스크린 등을 통해 영상만으로 국기에 대한 의식을 진행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

나. 국기 수거함의 설치·운영 등 국기의 관리 방법에 대해 정함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 1) 국기 천의 소재, 국기의 염색 및 가공, 국기의 품질 기준 등을 정함.
-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대회의 시상품이나 행사 기념품 및 방문 기념품 등으로 국기를 적극 활용하도록 함.
-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원실, 주민센터 등에 국기 수거함을 설치·운영하여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오염·훼손된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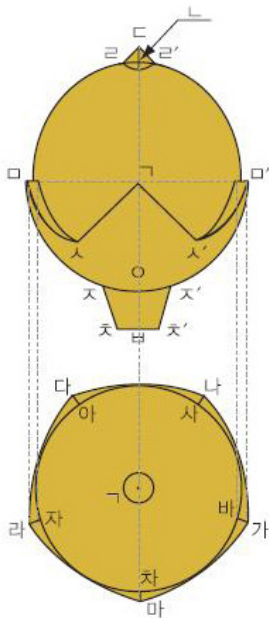
다. 국기선양을 위해 국기 및 국기문양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제18조 및 제19조)

- 1) 국기 및 국기문양의 활용을 통한 국기선양은 허용하되, 행정기관은 민간 기업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 국기선양과 관계없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기문양을 이용하지 않도록 계도·안내하도록 함.
-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기의 존엄성과 위상을 높이고 국민들의 국기에 대한 인식 및 친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기 보급 운동, 국기사랑 글짓기 대회, 그림 그리기 대회, 사진대전 등 다양한 국기 선양 사업을 개발·추진하도록 함.



깃대와 깃봉의 제작

국기의 깃대는 견고한 재질로 만들고, 그 색은 흰색 · 은백색 · 연두색 또는 이와 유사한 색으로 한다. 국기의 깃봉은 아랫부분에 꽃받침 다섯 편이 있는 둥근 무궁화 봉오리 모양으로 하며, 그 색은 황금색으로 한다. 깃봉의 지름은 국기 깃면 세로 길이의 10분의 1로 한다.



1. ㄱ-바를 짧은 축의 반지름으로 하고, ㄱ-ㄴ을 긴 축의 반지름으로 하는 반타원형이 꽃봉우리임(ㄱ-바는 깃면너비의 1/20, ㄱ-바: ㄱ-ㄴ=7:8임)
2. ㄴ-ㄷ · ㄴ-크은 각 ㄱ-ㄴ의 1/8
3. 꽃받침의 두께(바-가의 길이)는 ㄱ-바의 1/10
4. 가,나,다,라,마는 정오각형의 위치에 있음(각 점간 각도는 72°)
5. ㄱ을 중심으로 ㄱ-가를 반지름으로 하는 반(半)구형을 그려 꽃받침을 이룸
6. ㅅ은 ㄱ-ㅇ, ㄱ-ㅁ의 각각의 중간점에서 수평, 수직된 선의 교차점임
7. ㅇ-ㅅ은 ㄱ-바의 1/3
8. ㅅ-ㅅ': ㅅ-ㅅ'=5:3임

국기의 표준색도

태극기의 윗부분은 빨간색, 아래부분은 파란색 4괘는 검은색, 바탕은 흰색으로 표시한다.

색표시방법/색이름	빨간색	파란색	검은색	흰색
CIE 색좌표	x=0.5640 y=0.3194 Y=15.3	x=0.1556 y=0.1354 Y=6.5	—	—
MUNSELL 색표기	6.0R 4.5/14	5.0PB 3.0/12	N 0.5	N 9.5



다민족 포용정신을 담고 있는 태극기





3. 태극기는 민족의 열정과 희망

역사기록물을 보면 일제 강점기(1910년~1945년)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3.1독립만세운동(1919년)에서 태극기를 흔들었고 한국전쟁 때에도 태극기를 가슴에 품고 결의에 찬 모습으로 각오를 다지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독립운동가나 순국열사에게 태극기는 어떤 의미였을까?



1. 국난 시기 태극기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기
2. 국난 속 태극기를 통해 애국에 대해 깨닫기



광복의 믿음 준 태극기

일제에 의해 국권이 상실되자 수많은 애국지사가 독립군이 되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웠습니다. 또한 1936년 손기정 선생이 일장기를 달고 베를린 올림픽에 출전하여 마라톤에서 우승하자 동아일보, 조선·중앙일보는 일장기를 삭제하고 신문에 보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목숨 걸고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의지를 다지는 곳에 언제나 태극기가 함께 했습니다.



일제 강점기 대한민국 임시정부



1936년 베를린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한 손기정 선생의 가슴에서
일장기를 지운 동아일보,
1936년 8월 25일자. 동아일보



애국지사 지켜준 태극기

일제에 의해 국권이 침탈되자 수 많은 애국지사가 독립운동을 하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대표적인 분은 안중근,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의사 등입니다.



안중근 의사 단지 혈서



김구 선생과 윤봉길 의사



이봉창 의사



백정기 의사 동상



다시 휘날리는 태극기

광복의 기쁨이 가시기도 전에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군인은 물론 학도 의용병, 그리고 각 국에서 참전한 군인을 포함한 수 많은 사람이 목숨을 바쳐 이 땅을 지켜냈습니다.



▲ 경주 학도병 서명 태극기(1950년)

서울 수복과 태극기 게양 ▶
(1950. 9. 28 서울수복)

6.25전쟁시 서울을 수복한 후 중앙청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국군용사의 모습 (1957년 재현)



4. 국기에 대한 의례

국경일 방송을 보면 행사 참여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한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경례법일까? 국경일에 우리 집에서 국기를 게양하는 방식은 맞는 것일까? 장소에 따라 국기 게양하는 방식이 다른 것 같은데, 어떤 것이 옳은 것일까?



1. 상황에 따른 국기에 대한 경례법 알아보기
2. 장소에 따른 국기 게양법 알아보기



국기에 대한 경례 방법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때는 바르게 서서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바라봅니다.



일반인이 모자를 쓰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으로 모자를 벗어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바라봅니다.



제복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군인 · 경찰관 · 소방관 등은 국기를 향하여 거수경례를 합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 되새기기



나는 사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는 국민의례 절차에서 낭송하는 맹세문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하여 자신의 본분을 충실히 실천해야 합니다.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키고 번영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는 이유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지켜내겠다는 다짐입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를 읽고 나의 느낌을 적어 볼까요?



국기를 게양하는 날



국경일 및 기념일

- 3.1절 (3월 1일)
 - 광복절 (8월 15일)
 - 한글날 (10월 9일)
 -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 제헌절 (7월 17일)
 - 개천절 (10월 3일)
 - 국군의 날 (10월 1일)
-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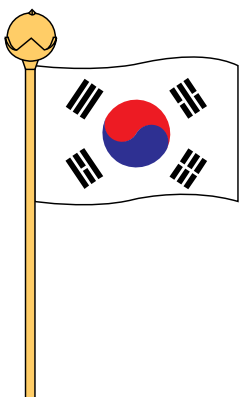
슬픔을 표하는 날 : 조기 게양

- 현충일 (6월 6일)
- 국장기간 : 국장은 국가나 사회에 현저한 공적을 남긴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국비로 치르는 장례식
- 국민장일 : 국민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 주관하는 장례 의전 가운데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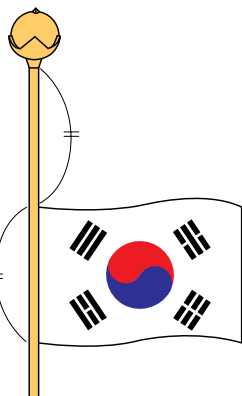


국기 게양하는 기쁜 날과 슬픈 날



국경일과 기념일

우리나라의 국경일과 기념일에는 국기봉에 태극기 상단이 달도록 게양합니다.



슬픔을 표하는 날

국가의 슬픈 날에는 태극기의 세로 폭 만큼 간격을 띄어 사진과 같이 게양함으로써 애도의 뜻을 표현합니다.



국기 게양하는 곳



매일 게양해야 하는 곳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건물
- 학교와 군부대



가능한 매일 게양해야 하는 곳

- 공항 · 호텔 등 국제적인 만남의 장소
- 대형건물 · 공원 · 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
- 주요 정부 건물, 많은 깃대가 함께 설치된 장소

※ 가정에서는 국가가 정한 날에 게양





건물에서의 국기 게양하는 방법

국기는 건물 밖에 게양하는 방법과 건물 안에 게양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장소에 따라 어떻게 게양하는 지 알아 봅시다.



건물 밖 게양 시

[단독주택]



주택 맞은편에서 바라보아 대문의 왼쪽에 게양한다.

[공동주택]



주택 맞은편에서 바라보아 베란다의
왼쪽이나 가운데에 게양한다.

[공공기관]



건물 앞 가운데나 왼쪽 또는 건물 위
가운데에 게양한다.



건물 안 설치 시

건물 안에서는 깃대에 게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태극기만 벽에 걸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른 국기 및 다른 기의 동시 게양 위치(제6조 5항 관련)



국경일 · 평일 및 조기 게양 방법

국경일 · 평일	조의를 표하는 날



국기게양대를 높게 설치한 경우

- 게양대가 3개인 경우(앞에서 바라보아)
- 게양대가 4개인 경우(앞에서 바라보아)

다른 기 2개와 함께 달 때	다른 기 3개와 함께 달 때



게양대의 높이가 동일한 경우

- 게양대가 2개인 경우(앞에서 바라보아)
- 게양대가 홀수인 경우(앞에서 바라보아)
- 게양대가 짝수인 경우(앞에서 바라보아)

다른 기와 함께 달 때	다른 기 2개와 함께 달 때	다른 기 3개와 함께 달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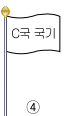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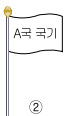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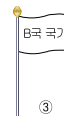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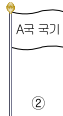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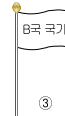
국기의 깃면을 늘어서 게양하는 방법

배너형 게양방법	도로에 국기만 게양할 때 (차량진행방향에서 바라보는 경우)	다른 기와 게양할 때 (차량진행방향에서 바라보는 경우)
	 깃면을 늘여 다는 형태(배너형)	 깃면을 늘여 다는 형태(배너형)



여러 외국기와 유엔기를 함께 게양할 경우(앞에서 바라보는 경우를 말한다)

• 국기와 외국기를 함께 게양할 경우

게양할 기의 총 수가 홀수인 경우(중앙)	 ④  ②  ①  ③  ⑤
게양할 기의 총 수가 짝수인 경우	 ①  ②  ③  ④

• 유엔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

게양할 기의 총 수가 홀수인 경우	 ④  ②  ①  ③  ⑤
게양할 기의 총 수가 짝수인 경우	 ①  ②  ③  ④





Ⅲ. 무궁화 바로알기



아름다운 우리나라꽃
무궁화에 대해 알아보까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나라꽃 무궁화는
대한민국의 5대 상징물 중 하나입니다.





“와아 무궁화다! 꽃이 대박 크고 아름답다.”

혜진이가 학교 화단에 활짝 핀 무궁화를 보며 말했습니다.

“너, 무궁화가 얼마나 지저분한 꽃인 줄 아니?”

진딧물이 장난이 아니야.”

나영이는 무궁화 앞으로 성큼 다가서려는 혜진이를 말립니다.

그 때 물뿌리개를 들고 나타난 교장 선생님이 웃으며 말합니다.

“무궁화가 지저분한 나무라는 말은 일제 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 민족의 상징인 무궁화를 천하게 여기도록 하기 위해 만든 말이란다. 무궁화는 피고 또 피는 꽃으로, 늘 새로운 기상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겨레의 민족성과 닮았단다. 21세기인 지금도 우리 국화인 무궁화가 이렇듯 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매우 슬프구나.”

교장 선생님이 무궁화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혜진이와 나영이는 갑자기 무궁화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궁화는 순결한 나라꽃

온 나라의 백성이 한결같이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꽃을 그 나라의 나라꽃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의 꽃이 수많은 사람에게 한결같이 사랑을 받는 것은 그 꽃이 모든 백성의 마음과 통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백성의 사랑을 받는 나라꽃은 곧 그 민족 전체의 혼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나라꽃은 무궁화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이 꽃으로 나라꽃을 삼자 하여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득히 먼 옛날부터 이 나라 안에는 방방곡곡에 무궁화가 피어 있어, 그 아름다움을 외국사람까지 일컫게 되고, 우리도 스스로 우리나라를 무궁화 동산이라 불렀습니다.

무궁화는 몹시 예쁜 꽃이거나 향기가 짙은 꽃이 아닙니다. 아담하고 은은한 향기를 지닌 순결한 꽃입니다. 희디흰 바탕은 이 나라 사람의 깨끗한 마음씨요 안으로 들어갈 수록 연연히 붉게 물들어, 마침내 그 한 복판에서 자줏빛으로 활짝 불타는 이 꽃은 이 나라 사람이 그리워하는 삶이라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한 가지 꽃을 사랑함은 이미 수많은 마음이 뭉쳐진 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며 이 한 마음은 한 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힘을 이루는 것입니다.

무궁화는 깨끗이 피고 지는 꽃입니다. 대부분의 꽃이 아무리 아름답더라도 질 때에는 더러워지는데, 무궁화는 곱게 오므라진 후에 꼭지가 빠지므로, 여간 깨끗하게 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죽어 갈지라도 새로 이어 나고 자라나서 길이 무궁한 빛으로 누리는 우리 겨레, 이 모든 겨레의 힘으로 또한 무궁하게 뻗어 나갈 우리나라, 이는 오로지 사람 사람이 제 스스로의 구실을 다하고, 깨끗이 지는 무궁화를 배움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지훈 1920-1968
시인, 전 고려대 교수

저서로 지조론, 시의 원리, 한국문화사
서설 등이 있다.



1. 나라꽃 무궁화

우리 학교에는 무궁화가 곱게 피어 있다. 우리 동네에도 곳곳에 무궁화가 심어져 있다. 무궁화는 언제부터 우리나라 꽃이 되었을까? 그리고 무궁화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 무궁이와 함께 사랑받는 무궁화에 대해 알아 볼까요?



1. 우리 민족의 무궁화 사랑 알아보기
2. 무궁화의 뜻에 대해 이야기하기



무궁화 피고 지는 군자의 나라

옛 기록을 보면 우리 민족은 무궁화를 고조선시대 이전부터 하늘나라의 꽃으로 귀하게 여겼습니다. 신라는 스스로를 '무궁화 나라 (근화향 : 槿花鄉)' 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중국에서도 우리나라를 오래 전부터 '무궁화가 피고 지는 군자의 나라' 로 칭송했습니다.



강릉시 방동리 무궁화 노거수
천연기념물 제520호, 수령 110년 추정



인천시 백령면 연화리 무궁화 노거수
천연기념물 제521호



우리 민족과 늘 함께 있었던 무궁화





무궁화에 담겨 있는 뜻



2. 나라꽃 무궁화운동

나라꽃 무궁화운동은 구한말 제국주의의 침략에 맞서 겨레의 자주와 주권을 지키고 회복하자는 뜻에서 시작하였다.

무궁화의 정신으로 강대국들과 당당히 맞서 겨루자는 운동이다.

한서 남궁억 선생과 좌옹 윤치호 선생께서 주창하여 많은 선각자들이 이 운동을 펼쳐서 일제강점기를 이겨냈다.

전쟁의 상처를 이겨내고 오늘의 번영을 이룬 것이다.



1. 일제 강점기 무궁화 수난에 대해 알아보기
2. 무궁화를 통해 지켜낸 애국심에 대해 알아보기



일제에 의한 무궁화 수난과 학대

세계 역사에 침략과 지배를 통하여 비극의 역사를 경험한 민족은 많지만 나라꽃이라는 이유로 말 못하는 나무까지 심지도 가꾸지도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뿌리 채 뽑아서 불에 태우고, 말도 안 되는 나쁜 이야기까지 지어서 학대한 경우는 없다.

일제가 지어 만든 무궁화에 대한 나쁜 이야기

- 무궁화는 보기만 해도 눈에 핏발이 서 죽는다.
- 몸에 닿기만 해도 부스럼이 생긴다.
- 진땀물이 꼬이는 지저분한 꽃이다.

무궁화를 없애고자 불태우고 탄압

- 무궁화 보급 운동가 처벌하기 – 남궁억 선생은 사상가이자 독립운동가이며, 언론인과 교육자로 평생을 사신 분입니다. 무궁화 8만 그루를 심어 전국에 나누어 주며 민족혼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일제 경찰에 발각되어서 무궁화는 모두 불태워지고, 선생은 감옥에서 심한 고문을 당한 끝에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 일제는 모곡학교 학동들로 하여금 7만 주의 무궁화를 뽑게 하여 불에 태웠다.



독립운동가 남궁억 선생의 무궁화운동

홍천군 보리울(모곡)에서 태어난 한서 남궁억 선생(1863~1939)은 대한제국 때 독립협회에서 활약하셨던 계몽 운동가이자 황성신문 사장 겸 주필로 활동한 애국지사입니다. 대한제국이 강점되자 남궁억 선생은 무궁화를 보급하다 일제에 의하여 모진 고문을 받고 그 후유증으로 순국하게 됩니다.



무궁화를 사랑하는 정신을 일깨운 남궁억 선생은 무궁화 묘목 보급, 무궁화 수본 만들기, 그리고 무궁화 그리기 운동을 펼치셨습니다.

남궁억 선생은 일제의 탄압 가운데 무궁화를 통해 민족을 단결시키고 독립정신을 고취시키고자 노력하였으며 “나를 과일 나무 밑에 묻어서라도 거름이 되게 하라”라는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남궁억 선생은 한반도 산하 홍천 땅에 무궁화를 심었으며, 홍천을 중심으로 무궁화 보급운동을 펼쳤습니다.

1923년 무궁화라는 시를 통해 “... 특별하다. 무궁화는 자랑할 것도 많다. 여름 가을 지나도록 무궁 무진 꽃이 핀다. 그 번식하는 방법은 씨 심어서 될 뿐더러 접붙여도 살 수 있고, 꺾꽂이도 성하도다” 라며 무궁화를 예찬하기도 했습니다.

홍천군은 모곡리에 ‘무궁화 마을’을 조성해 한서문화제, 나라꽃 무궁화축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무궁화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학교에 무궁화 묘목 나눠주기 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남궁억 선생과 무궁화 수본

남궁억 선생은 일제 강점기 독립정신을 높이기 위하여 배화여고 학생들에게 ‘무궁화 수본 한국지도’를 수놓게 하기도 하였다.

무궁화 수본



무궁화 예찬

금수강산 삼천리에 각색초목 번성하다
 춘하추동 우로상설(雨露霜雪) 성장성숙(成熟) 차례로다
 초목 중에 각기자랑 여러 말로 지껄인다
 복사오얏 변화해도 편시춘(片時春)이 네 아닌가
 더군다나 벚꽃은 산과 들에 변화해도
 열흘 안에 다 지고서 열매조차 희소하다
 올밀 황국 자랑소리 서리 속에 꽃핀다고
 그리하나 열매있나 뿌리로만 싹이 난다
 특별하다 무궁화는 자랑할 말 하도 많다
 여름 가을 지나도록 무궁 무진 꽃이 핀다
 그 씨 번식하는 것 씨 심어서 될 뿐더러
 접부쳐도 살 수 있고 꺾꽂이도 성하도다
 오늘 한국 삼천리에 이꽃 희소 탄식말세
 영원 변창 우리 꽃은 삼천리에 무궁화라

남궁억 1923년

적용활동

아름다운 무궁화 문양으로 한지 공예, 스텐실, 십자수 기법 등을 활용해 열쇠고리 등의 생활 공예 소품을 만들어보자.



아끼고 사랑해야 할 무궁화







무궁화 예찬시

그 많은 꽃 중에서

그 많은 꽃 중에서
우리꽃 무궁화는
조금도 꾸밈 없는
수수한 차림이다
모양도 색깔도
화려하지 못하고
있는 듯 없는 듯
향기조차 너무 순해
자신을 낮추고
흰옷을 즐기면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다
그 많은 꽃 중에서
배달꽃 무궁화는
다섯장 꽃잎이
붉은 심을 싸고 있다
어기찬 흐름을
깊이 감춘 강물처럼
근면과 성실로
내일을 기약하고
일편단심 나라 위한
뜨거운 열정으로
곳곳이 살아가는
배달의 정신이다

그 많은 꽃 중에서
내 사랑 무궁화는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피어난다.
어제의 뿌리에서
오늘의 줄기 받고
오늘의 줄기 위에
내일을 꽃피움은
나날이 새로웁게
끝없이 전진하는
영원한 복지국가
조국의 표상이다
그 많은 꽃 중에서
나라꽃 무궁화는
꽃잎의 밑동이
하나로 되어 있다
우리는 말과 글
겨레도 하나
반만년 역사와
전통도 하나로서
한 핏줄 한 마음
통일의 조국만이
우리의 살길이고
이룩할 사명이다

김종상 1984 (하늘빛이 쌓여서)



무 궁 화

빛의 나라, 아침 햇살 꽃으로 핀다
 머나먼 겨레 얼의 굽이쳐 온 정기
 밝아라, 그 안의 햇살
 은은하고 우아한
 하늘 땅이 이 강산에 꽃으로 핀다
 초록바다 아침 파도 물보라에 젖는다
 동해, 서해, 남해 설렘
 오대양에 뻗치는
 겨레 우리 녀의 파도
 끓는 뜨거움
 바다여, 그 겨레 마음 꽃으로 핀다

무궁화, 무궁화
 낮의 해와 밤의 달
 빛의 나라, 꿈의 나라, 별의 나라 영원한
 겨레, 우리 꿈의 성좌 끝없는 황홀
 타는 안에 불멸의 녀 꽃으로 핀다

그 해와 달
 별을 걸어 맹세하는 우리의 사랑
 목숨보다 더 값진 우리의 자유
 민주, 자주, 균등, 평화의 겨레 인류의 꿈
 꽃이여, 불멸의 녀 죽지 않는다
 오고 오는 세계 영원 피고 또 핀다

박두진
 (청록파시인)



무 궁 화

쭉쭉뻗은 너의 절개
고귀하고 아름답다

새하얀 옷, 연분홍 옷
수놓은 옷 갈아입고

새벽이슬 머금으며
햇님에게 인사하네

모진역경 비바람에
이리저리 흔들어도

피고지고 피고지고
무궁무진 무궁화라

우리가슴 뛰게 하는
너는 너는 겨레의 꽃

김중희 2013 무궁화이야기 화집

민족의 혼불

꽃이라고 다 꽃이런가
백일을 피고 지고 또 피어

겉으로 보아 흠어져 있어도
속내는 민족의 화합 담긴 통꽃

수 천년동안 모진 고난에도
우리 가슴에 피고 또 피어

아침에 피어나 하루를 밝혀주는
우리 민족의 혼불

최봉실 시인



대한의 아이

아득한 날에
하늘이 열리고
대륙과 한반도에
무궁화 피었으니
보아라
찬란한 아침의 나라
대륙을 말 달리던

고구려 할아버지의 기상과
섬나라 왜국에 문화를 심어 준
선비의 얼이
우리의 한 핏줄에 면면히 흘러
일컬어 우리 대한 동방의 등불

끊임없는 시련을
슬기와 끈기로 이겨내고
한 걸음 한 걸음
산을 넘고 바다 건너
온누리 향해 나래를 편다

오천년 무궁화
오늘 이 자리에
우리들 마음에 새록새록 피어나
너와 나, 우리는 대한의 아이다

친구야, 우리 가슴을 열자
너와 나, 우리 마음 한데 모아서
푸른 꿈과 슬기로
미래로 가자

손에 손 맞잡고
새 하늘을 열자
우리들의 푸른 꿈을 한데 모아서
세계의 등불
불을 밝히자

조명제 1989 조명제 동시집



무궁화

오천만의 빛이요, 겨레의 상징
오대양 육대주를 주름잡는 너
떨치는 국위 펴터는 태극기

건곤팔괘기와 함께하는 너 국화야
無盡無窮盛茂永遠悠久(무진무궁성성무무영원유구)
그대는 나라꽃 민족의 혼이어라

자갈 소식 거암되어 푸른 이끼 끼우도록 무궁한
이 민족은 뻗어가노라
겨레가 모두
아침 이슬 머금고 수줍은 듯 웃는 너 겨레의 꽃
가지 마다 마다 맺힌 망울 망울 멈춤없이 피어나는 꽃
紫色(자색) · 보라 · 白色(백색) · 濃香(농향) 뿜는 그 내음은 겨레의 사랑

끊임없이 이어피는 꽃 長壽花(장수화) 너는 무궁화
번영도 너와 같이 무궁히 뻗어가노라
조국은 민족의 전진 만방으로 가노라
그대와 같이 되찾을 동산에 피어질 목근아 어서 가자
동부여(東扶餘)로 검푸른 송화강과 흑룡강에 겨레의 얼을 심고
파초잎 그윽한 흥안령 넘어가서 근역성(槿域城) 둘러치고 태극기 휘날리니...

요동땅 옥야천리 뜰가에 피어줄 근화(槿花)야
선아의 그 품격 군자국의 有(유) 薰華草(훈화초)
되찾은 동부여 산하에 가득 찰 너 겨레는 내땅 동부여로
달리노라
암우루강 밑까지 무궁화야 피어라

작자미상

(일제 강점기에 북만주, 간도에서 항일투쟁을 한
독립투사의 미망인이 쓴 시)



무궁화 동요

무궁화 행진곡

윤석중 작사

손대업 작곡



무궁화 동산

제1절

우리의 웃음은 따뜻한 봄바람
춘풍을 만난 따듯한 동산
우리의 눈물이 떨어질 때마다
또 다시 소생하는 이천만
(후렴) 빛나거라 삼천리 무궁화 동산
잘 살아라 이천만의 고려족

제2절

백화가 만발한 무궁화 동산에
미묘히 노래하는 동무야
백천만 화초가 묘는 것 같이
즐거워라 우리 이천만
(후렴) 빛나거라 삼천리 무궁화 동산
잘 살아라 이천만의 고려

(남궁억 작사 작곡)

3. 무궁화의 생김새와 자생지

전국에는 많은 무궁화 동산이 만들어져 있다. 무궁화는 종류가 참 다양한 것 같다. 무궁화는 어떻게 생겼으며 그 종류는 얼마나 많으며,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일까? 우리나라 꽃인 무궁화는 어떤 이로운 점이 있을까? 무궁이와 함께 무궁화동산으로 여행하며 무궁화에 대해 알아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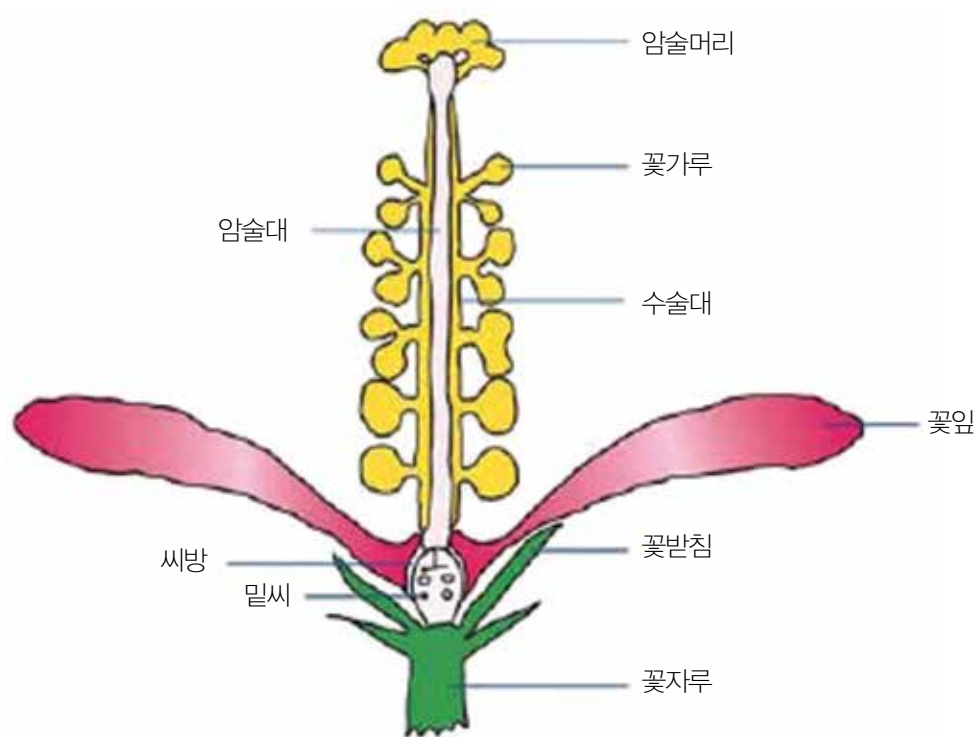
꼭 알아두기

1. 무궁화의 생김새 알기
2. 무궁화의 이로운 점 알기
3. 무궁화의 종류와 자라는 곳을 알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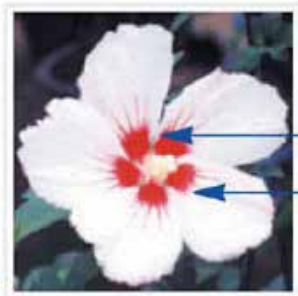
무궁화의 생김새

무궁화는 꽃잎에 따라 홑꽃, 반겹꽃, 겹꽃이 있으며 색상과 잎의 형태도 백단심계, 홍단심계, 청단심계, 아사달계, 배달계 분류에 따라 색이 달리 나타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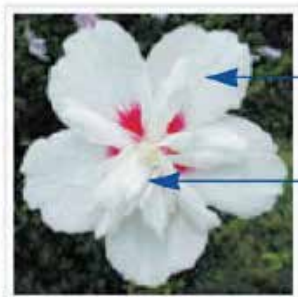
꽃, 잎, 씨앗 형태



단심

단심방사맥

홀꽃



기본꽃잎

겹꽃잎

겹꽃



[무궁화 잎 모양]



[태극모양을 한 무궁화 씨앗 모습]



무궁화의 하루

무궁화는 낙엽활엽소 교목으로 대개 4월 말~5월 초에 잎이 피기 시작하며 그 해 새로 난 가지의 잎겨드랑이 쪽에 꽃봉오리를 맺게 되는데, 7월 초부터 10월 중순까지 가지가 계속 자라면서 위쪽으로 향해 돌는 잎의 겨드랑이마다 꽃을 피웁니다. 반겹꽃 또는 겹꽃 계통 중에는 2~3일 간 피어 있는 품종도 있어 관상용으로 다양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무궁화의 하루]



세계 속에 핀 무궁화

우리나라의 국화인 무궁화는 정원수나 관상식물로 해외에서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무궁화는 57개국에서 기르고 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상품화 되기도 합니다.



프랑스 브발루아-페레시청 국기 게양대 앞



히비스커스 (무궁화) 추출물로 만든
'랄프 로렌 서머 로맨스' 향수. 미국



히비스커스 (무궁화) 차. 독일



무궁화의 이로운 점

무궁화는 먹을 수 있는 꽃입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영양소를 많이 지니고 있어서 잎, 씨, 꽃망울, 꽃잎 등을 모두 먹어도 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봄철에 무궁화 잎을 따다 나물로 무치거나 국을 끓여 먹기도 하였습니다. 요즘은 스님들이 몸과 마음을 맑게 하기 위해 무궁화 새순으로 된장국을 끓여 먹기도 합니다. 무궁화 꽃잎차는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높아 유럽과 중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즐겨 마시고 있습니다.



무궁화를 이용한 음식과 차

적용활동

무궁화의 새순이나 활짝 피기 전 꽃봉오리를 따서 꽃 속에 있는 수술을 제거한 후 그늘에 말리거나 살짝 약한 불에 구워서 말려 무궁화 차를 만들어 보자.



무궁화의 품종

무궁화는 200여 종에 이르며, 아래와 같이 크게 6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무궁화는 나무에서 피는 드문 통꽃으로, 5장의 꽃잎과 꽃잎 안쪽 진한색의 단심
그리고 하나의 꽃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배달



일편단심



영광



고요로



동해



아사달

배달계

특성 / 순백색의 꽃

종류 / 옥토끼, 옥선, 소월, 배달, 한서, 눈뫼, 사임당, 새한
백란, 눈보라

백단심계

특성 / 백색 계통의 꽃에 단심이 있는 꽃

종류 / 화랑, 일편단심, 새빛, 설단심, 한보람, 한누리, 설악

홍단심계

특성 / 붉은색 계통의 꽃에 단심이 있는 꽃

종류 / 영광, 아랑, 평강공주, 홍순, 아사녀, 꽃보라

자단심계

특성 / 자색 계통의 꽃에 단심이 있는 꽃

종류 / 고요로, 홍단심, 진이, 한얼, 향단, 불꽃, 칠보
홍화랑, 새아씨, 내사랑, 자선, 세레나데

청단심계

특성 / 보라색 계통의 꽃에 단심이 있는 꽃

종류 / 동해

아사달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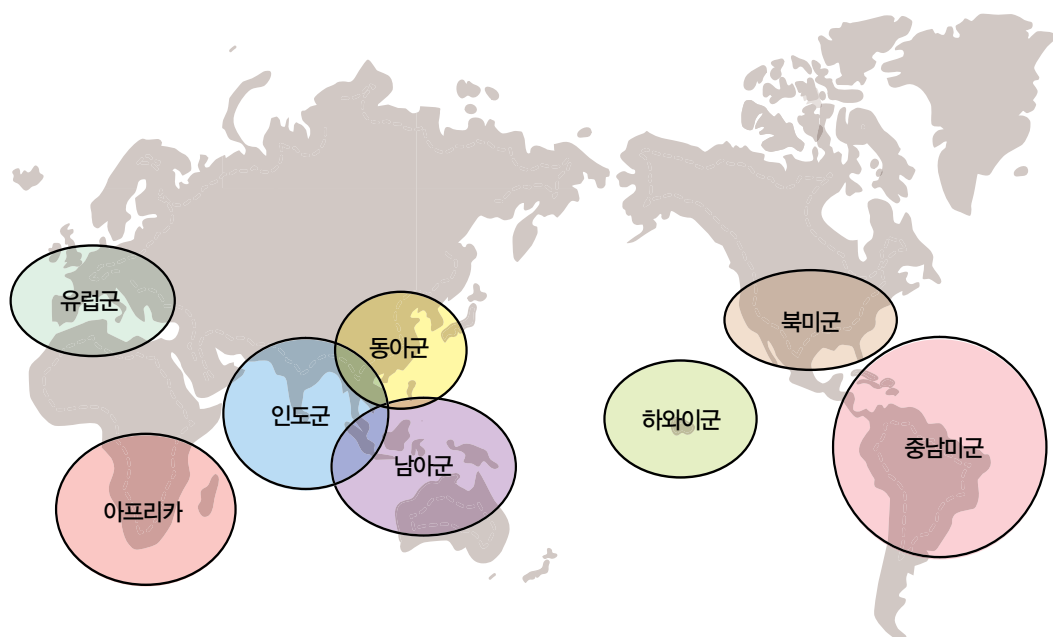
특성 / 백단심 계통의 꽃잎에 분홍색 무늬가 있는 꽃

종류 / 아사달, 칠보아사달, 평화, 새아사달



무궁화가 잘 자라는 곳

무궁화는 우리나라 방방곡곡 어디에서든 잘 자랍니다. 햇빛을 좋아하고 여름이나 가을에 꽃을 피웁니다. 무궁화는 생명력 또한 아주 강합니다. 겨울철을 빼고는 아무 때나 옮겨 심어도 뿌리를 잘 내립니다. 번식을 위해 씨를 묻어도 되고, 가지를 꺾어 심어도 잘 자랍니다. 뿐만 아니라 공해는 물론, 해로운 벌레나 균도 잘 이겨낸답니다. 무궁화는 한국, 싱가포르, 중국, 인도 등에도 두루 퍼져 있고 그 아름다운 모습을 세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세계의 무궁화 분포도

4. 다시 피어나는 무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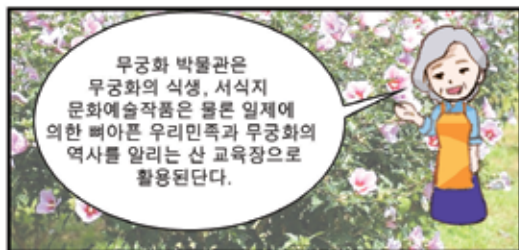
일제 강점기에 전국의 수많은 무궁화가 뽑혀지고 베어졌다고 한다. 우리 주변에 무궁화가 그리 많지 않은 이유를 알 것 같다. 우리나라는 광복 후 무궁화를 얼마나 심었을까? 나라꽃 무궁화는 얼마나 사랑받고 있을까? 어디를 가면 무궁화를 볼 수 있을까?



1. 무궁화 날과 관련 행사 알아보기
2. 가까운 무궁화 동산 알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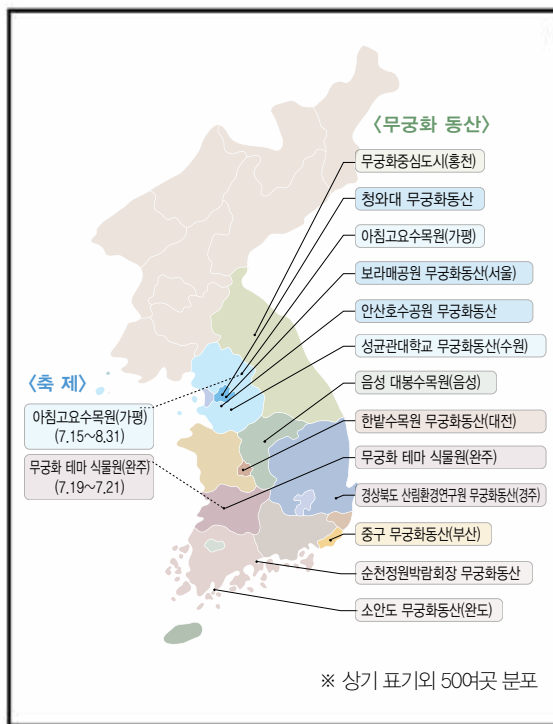


무궁화 날과 무궁화 박물관





무궁화 동산과 무궁화 축제





무궁화 선양 행사

무궁화 축제와 무궁화미술대전

일제강점기에 이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이들이 나라 사랑 정신으로 무궁화 운동을 전개해 왔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축제와 포럼, 출판 등 그 종류를 일일이 소개하기도 어렵다. 대한민국무궁화미술대전과 태극기·무궁화 선양회에서의 태극기·무궁화 박물관 건립 등은 그 맥을 이어 보다 구체적으로 무궁화운동을 전 국민의 운동으로 확산 시켜가고 있다.

끝없이 피고 또 피는 무궁화처럼 그렇게 펼쳐가는 나라사랑 무궁화운동은 영원 번창 할 우리민족의 정신운동이다.



대한민국무궁화미술대전(국회의원회관)



서울 화계중학교 태극기·무궁화박물관



대한민국무궁화미술대전(국회의원회관)



전국 나라꽃 무궁화축제 (현충원)

안산 나라꽃 무궁화축제
(안산호수공원무궁화동산)

적용활동

무궁화 축제나 무궁화미술대전에 참여해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직접 보고 그려보자.

5. 무궁화 가꾸기

우리나라꽃 무궁화는 참으로 곱다. 우리집 근처에도 무궁화 꽃이 있다면 참 좋겠다. 무궁화가 우리 국토를 아름답게 수 놓도록 나도 길러 보고 싶다. 무궁화는 어떻게 번식하는 것일까? 집에서 화분으로 길러 보면 어떨까?



1. 무궁화 심고 가꾸기
2. 무궁화 화분 만들기



씨앗으로 가꾸기

무궁화는 다른 식물들에 비해 잘 자라고, 번식이 잘 되어 쉽게 키우고 가꿀 수 있습니다. 씨앗을 심어 싹 틔울 수도 있고, 꺾꽂이를 하거나 어린 묘목을 땅에 심어도 됩니다.

무궁화를 어떻게 심고 가꾸는지 다 함께 알아보까요?

어떻게 가꾸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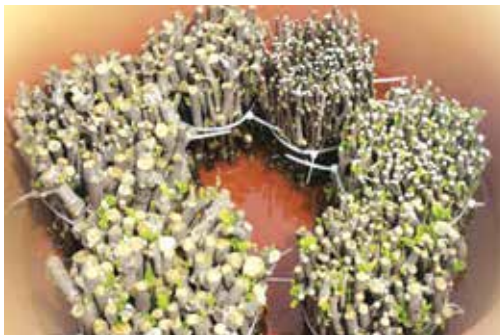
- 씨앗은 8월 말에서 11월 초까지 채취합니다.
- 채취한 씨앗은 건조한 곳에 보관합니다.
- 다음해 5월 무렵 씨와 가는 모래의 비율을 1:10 정도로 섞어 뿌린 뒤 짚을 덮어줍니다.
- 20일 정도 지나면 떡잎이 나오는데 비료는 10cm 정도 자란 후에 줍니다.

적용활동

10월 경에 씨앗을 채취해 두었다가 다음해 5월 경에 화분에 심어서 가꾸어 보자.



꺾꽂이로 가꾸기



꺾꽂이를 위해 준비 중인 무궁화 가지들



삼목한 무궁화 꺾꽂이

적용활동

3~4월경 무궁화 꺾꽂이를 해서 집안의 화단이나 화분에 길러보자.



무궁화 화분 만들기

준비물

씨앗, 가는 모래와 흙, 화분

화분 만들기

1. 흙과 모래를 1:1로 섞어서 화분에 2/3를 먼저 담습니다.
2. 나머지를 가는 모래로 채웁니다.
3. 씨를 약 3cm 깊이에 심고 그늘진 곳에 둡니다.

씨앗 틔우기

1. 물을 약간 촉촉할 정도로 이틀에 한 번씩 줍니다.
2. 20일이 지나면 떡잎이 나옵니다.

물 주고 기르는 방법

화분에 물주기는 사흘에 한 번 충분히 줍니다.

햇빛이 많이 드는 곳에 놓으면 매일 물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일 년이 지나면 퇴비와 흙을 더 넣은 화분으로 분갈이를 해 줍니다.



파종하여 50여일만에 잎이 나온 모습



발아 20일 후 모습



발아 40일 후



발아 80일 이후



무궁화 개화 모습



화분에서 자라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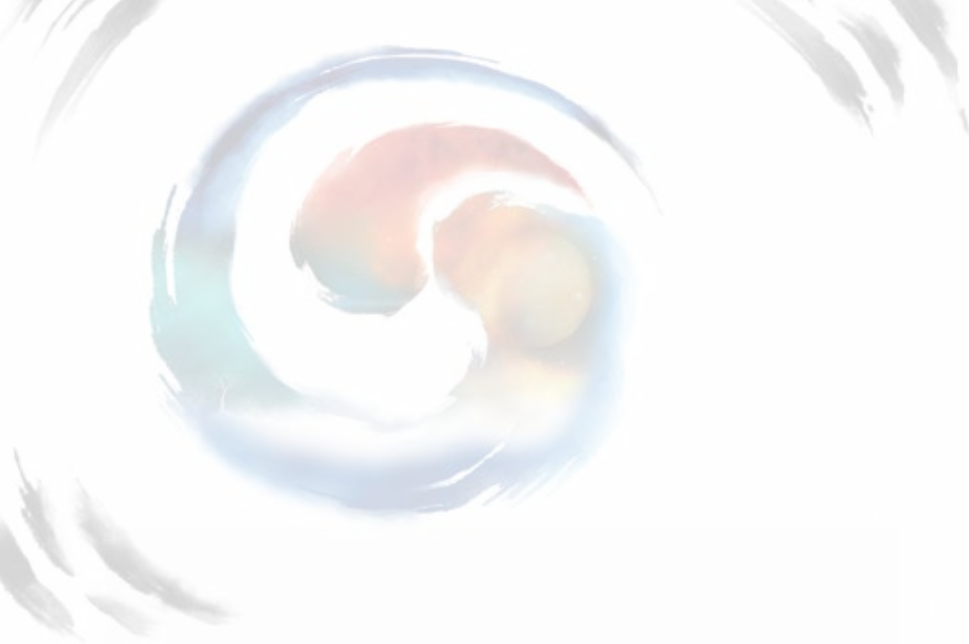




IV. 생활 속 태극기와 무궁화

지금까지 태극기와 무궁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태극기와 무궁화의 쓰임새를 자세히 알아보까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징물 태극기와 무궁화는
기쁠 때나 슬플 때 늘 우리 민족과 함께 해 왔습니다





2030년 여름이에요. 통일된 우리나라가 다시 월드컵 축구대회를 열었어요.
세계 각국 사람들이 오늘 결승전을 보려고 비무장지대에 세운 통일경기장에 모여들어요.
이 경기장은 태극기를 응용해서 디자인한 경기장이에요.
결승전의 상대는 한국과 브라질. 경기장 주변엔 무궁화가 활짝 꽃피고 있었어요. 관중들은 태극기를 흔들어요.
애국가가 울려 퍼지면서 온 국민은 뜨거운 가슴으로 우리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짹짹 짹짹”
태극기와 무궁화가 없었다면 이렇게 국민 모두가 일치단결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국가 상징과 국민 통합에 활용되는 태극기 · 무궁화

태극기는 우리나라의 건국이념을 시각적으로 나타낸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태극기야말로 우리 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집약된 애국심의 표상입니다.

무궁화는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꽃이지만 새 꽃이 뒤따라 피고 또 이어서 피기 때문에 무궁무진하다고 무궁화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무궁화의 정신으로 우리의 주위를 아름답게 꾸며야 합니다.

우리는 태극기와 무궁화가 지니고 있는 상징성을 일상생활의 친근한 소재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조선시대 만들어진 카드
(제작년도 1880~1890 미국)



광복 이후 무궁화 도안을 활용한 동전



광복 이후 무궁화 도안을 활용한 화폐

1. 대한민국의 상징, 그리고 아리랑과 한글

국제경기를 보면 선수단이 입장할 때 항상 그 나라 국기를 앞세우고 입장하고, 우승을 하면 그 나라의 국가가 울려 퍼진다. 국기와 국가는 그 나라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이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것으로는 국기(태극기)와 국화(무궁화)가 대표적이다. 이 외에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나라 국가 상징에 태극기와 무궁화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



1. 우리나라 국가 상징의 종류 알아보기
2. 국가 상징에 태극문양과 무궁화가 어떻게 활용되는 지 알아보기



국가 상징으로서의 태극기와 무궁화

국가의 상징으로 활용

태극기와 무궁화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징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극기와 무궁화가 어떻게 활용되는 지 살펴 봅시다.



배지 · 모표 등에 활용





대한민국의 국호, 연호

국호

대한민국

「나라의 칭호! 국호」 우리나라의 정식 국호는 대한민국(大韓民國)이다.

사용의 편의상 대한(大韓)이나 한국(韓國)으로 약칭하여 쓸 수 있다.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연호



1962.1.1부터 서력기원(西曆紀元)을 사용

“대한민국 공동 연호는 서력기원으로 한다.”

연호의 연혁

'48. 08. 15 ~ '48. 09. 24 대한민국(1919년을 원년으로 함)

'48. 09. 25 ~ '61. 12. 31 단군기원(1948년을 단기4281년으로 함)

'62. 01. 01 ~ 현재 서력기원(연호에 관한 법률 개정)

참고사항

서력기원 연대와 단군기원 연대의 차이는 2333년이다. 현재의 서력기원은 공문서 등에 공용연호로 사용하고 있으며, 종교계, 학계 등 민간에서 단군기원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서력기원 연호의 사용은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어 있으며, 일부 국가의 경우 서력기원과 자국의 특수 연호를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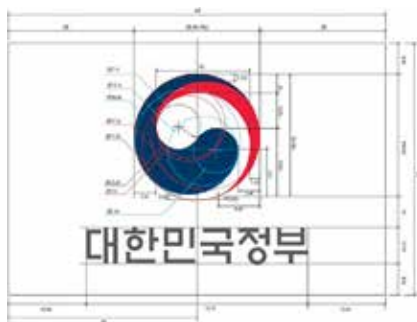


대한민국의 정부기

근거 정부기에 관한 공고 (2016.3.29. 대통령공고 제264호)

제작방법

1. 깃면 제작기준



가. 깃면의 가로와 세로는 3대 2의 비례로 한다.

나. 정부기의 표준색도는 다음과 같다.

[정부기의 표준색도]

구분 방법	정부문양 내 좌측 부분	정부문양 내 우측 부분	정부문양 내 기운데와 바탕 부분	글자 부분
KS 색표기 (KS 계통색 이름)	25PB 2/6 (진한 파랑)	25R 4/14 (선명한 빨강)	N 95 (-)	N 4 (-)
OE 색표기 (D65, 2도시야)	Y = 3.069 x = 0.1833 y = 0.1988	Y = 11.70 x = 0.5369 y = 0.2810	Y = 87.75 x = 0 y = 0	Y = 11.70 x = 0 y = 0

다. '대한민국정부'의 글씨체는 '대한민국정부 상징체'로 한다.

라. 실내에 게양하는 경우 깃대에 달는 쪽을 제외한 깃면의 둘레를 금실로 장식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실의 폭은 깃면 세로의 8분의 1로 한다.

2. 깃봉과 깃대 제작기준

「대한민국국기법」 제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사용방법

가. 정부기는 정부청사, 정부 회의실 등에 게양깃면만 게시하는 경우 포함할 수 있다.

나. 정부기는 국기 다음의 위치에 게양하며 외국기와 함께 게양하지 아니한다.

다. 정부를 상징하는 문양 또는 문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기의 깃면의 바탕 또는 글자를 제외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색채를 달리 할 수 있다.

라. 국가행정기관은 정부기의 문양 아래에 "대한민국정부" 대신 "해당기관의 명칭"을 넣어 이를 기관기로 활용한다. 다만, 특정기능 수행, 대내외적 인지도 등을 감안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정부를 상징하는 문양을 기관기로 사용하는 국가행정기관은 이를 기관문양으로 사용한다.



대한민국의 나라문장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휘장 또는 철인

대한민국 나라문장은 1963년에 제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나라문장은 다른 나라에 보내는 공문서와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서, 그리고 국가의 표지를 나타낼 필요가 있는 시설이나 문자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문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라문장의 한 가운데에는 태극이 그려져 있는데, 무궁화 꽃잎 다섯 개가 태극을 감싸고 있습니다. 꽃잎 아래에 있는 청색 리본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이 한글로 적혀 있습니다. 나라문장(국장)은 휘장 또는 철인으로 사용합니다.



대한민국의 나라문장(국장)



대한민국의 국새

국가의 중요문서에 사용

국새는 국가의 권리와 정통성을 상징하며, 국가권력 이양의 징표로 사용되는 도장입니다.

외교문서나 국가의 중요 문서에 날인하여 사용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국새는 2011년 10월 25일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질은 금, 은, 구리, 아연, 이리듐의 합성 금속이며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 10.4cm 무게는 3.3kg입니다

도장에 새긴 글자는 '대한민국'이라는 훈민정음체이며 도장의 손잡이는 봉황과 무궁화입니다.



제5대 국새



애국가는 민중이 부르던 노래

애국가는 나라사랑의 정신을 일깨워 북돋아 주는 노래입니다.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애국가는 열여섯 마디로 되어 있는 ‘사 장조’의 곡으로 간결하고도 장중합니다.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애국가의 노랫말은 대한제국 시대부터 시작되었는데 곡조는 스코틀랜드 민요인 ‘올드 랭 사인’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1935년부터는 작곡가 안익태가 지은 관현악곡인 ‘한국 환상곡’의 뒷부분에 가사를 붙여서 불렀습니다.

애국가는 원래 민중의 노래였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0년부터 공식행사에서 부르기 시작했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는 애국가를 우리나라 공식 국가로 인정했습니다.

애국충성가

1. 東海水(동해수)와 백두산에 해돋고 달 뜨니
臣民(신민)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후렴) 무궁한 삼천리 화려강산에
대한 사람 대한에서 길이 충성하세
2. 南山壽(남산수)와 靑松竹(청송죽)은 절개도 높으나
風雨霜露(풍우상로)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3. 춘하추동 사계절은 분명코 밝으니
일편단심 忠國城(충국성)은 우리 가슴일세
4. 天地臣民(천지신민) 충성심은 다할 길 넓으며
자나 깨나 애국심은 우리 황제일세



애 국가

안익태 작곡



1. 동해물과 파도가
2. 댕글하듯
3. 댕글하듯
4. 댕글하듯



세. 세. 세. 세.
만 일 일 하
라 상 심 랑
나 기 단 사
리 리 편 라
우 우 일 나
사 은 습 나
하 합 가 우
- - - -
우 변 리 거
보 불 우 줄
이 리 은 나
님 서 달 우
느 략 은 로
하 바 밝 과



(후편) 무 - 궁 화 삼 - 천 리 화 려 강 - 산.



대한사 랫 대 한 - 으 로 길 이 보 전 하 세

한글

1. 동해 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2. 남산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서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3.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4. 이 기상과 이 맘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漢字混用

1. 東海 물과 白頭山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保祐하사 우리나라 萬歲, 無窮花 三千里 華麗江山
大韓사람 大韓으로 길이 保全하세.
2. 南山위에 저 소나무, 鐵甲을 두른 듯 바람서리
不變함은 우리 氣像일세, 無窮花 三千里 華麗江山
大韓사람 大韓으로 길이 保全하세.
3. 가을 하늘 空豁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一片丹心일세, 無窮花 三千里 華麗江山
大韓사람 大韓으로 길이 保全하세.
4. 이 氣像과 이 맘으로 忠誠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無窮花 三千里 華麗江山
大韓사람 大韓으로 길이 保全하세.



민족의 노래 아리랑

체제와 사상을 뛰어넘어 함께 부르는 노래

‘아리랑’은 우리나라 전 지역에 걸쳐 널리 불리는 전통민요이다. ‘아리랑’이라는 소리가 후렴에 들어 있는데 대체로 3음보로 되어 있는 서정적인 노래이다.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한민족이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심금을 울리며 불리어지고 있는 삶의 소리이자 한풀이이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 어디에서나 불려온 민족의 노래이다.

정선아리랑, 진도아리랑, 밀양아리랑은 3대 아리랑이라 일컬어지고 있으며 3대 아리랑이 자생적 전통 민요인데 대하여 서울아리랑, 경기아리랑은 전통아리랑을 인위적으로 변이시킨 것이라 해서 ‘신민요 아리랑’이라 한다. ‘아리랑’은 우리 민족이 가장 즐겨 부르는 노래이다. 누구나 자연스럽게 부르는 우리나라를 표상하는 제 2의 애국가라 할 수 있다.

아 리 랑

세마치

아 - 리랑 - 아 - 리랑 - 아 라 -- 리 - 요 - - - -

아 - 리랑 - 고 - 게 - 로 - 념 - 여간 다 -

나 - 를 버 리 고 가 시 는 엄 - 은 - - - -

십 - 리도 - 못 - 가 - 서 - 팔 - 병난 다 -



아리랑의 노랫말과 영문 아리랑 악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난다.

다음은 아리랑의 다양한 여음들이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소. (정선아리랑)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났네. (진도아리랑)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어절시구 날 넘겨주소. (밀양아리랑)

KOREAN VOCAL MUSIC.

A - ra - rung a-ra-rung a - ra - ri - - o..... a - ra - rung

öl - - sa pai ddi - ö - ra. Mun-gyung sai-chai pak-tala-n

mu..... hong-do-kai pang-maing-i ta na - kan - 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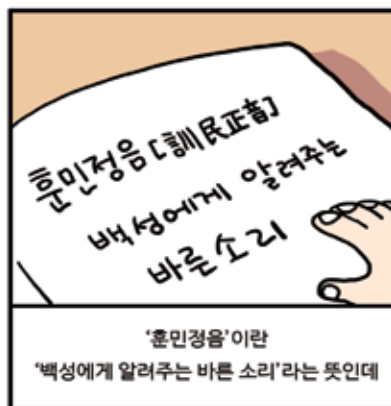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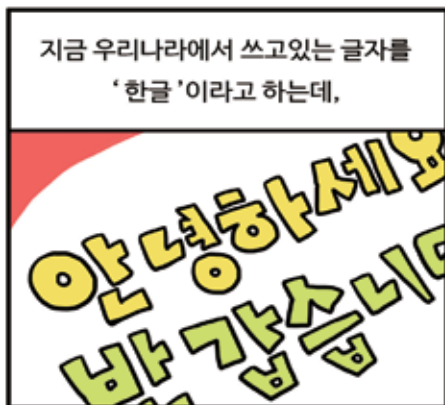
Here we have the chorus first and then the following:-

On Sai Jai's slope in Mun-gyung town

‘한국인의 소리’ 구전 ‘문경세계 아리랑’ 서양악보를 처음 채보한 아리랑 악보, 1896년 호머 헐버트, 문경옛길 박물관



배우기 쉽고 말하기 쉬운 한글







‘한글’이라는 말은
1910년대에 이르러 생겨났다.



주시경 선생님
(1876~1914)

‘한글’과 ‘훈민정음’의 차이점은 ‘훈민정음’은 총 28자로 되어있고

훈민정음: ㄱ, ㅋ, ㆁ, ㄷ, ㅌ, ㄴ, ㄹ, ㄷ, ㄴ, ㄹ, ㅅ, ㅆ, ㅇ, ㅈ, ㅊ, ㅍ,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ㅖ, ㅙ, ㅚ, ㅝ, ㅞ, ㅟ, ㅠ, ㅢ, ㅣ, ㅤ, ㅥ, ㅦ, ㅧ, ㅨ, ㅩ, ㅪ, ㅫ, ㅬ, ㅭ, ㅮ, ㅯ, ㅰ, ㅱ, ㅲ, ㅳ, ㅴ, ㅵ, ㅶ, ㅷ, ㅸ, ㅹ, ㅺ, ㅻ, ㅽ, ㅿ, ㅾ, ㅿ, ㅿ = 28자

‘ㅇ’ 옛이음 ‘△’ 받침음
‘ㄹ’ 여린히음 ‘.’ 아래아
이렇게 읽습니다.

한글은 24자인 것이다.

한글: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ㅅ, ㅆ, ㅇ, ㅈ, ㅊ, ㅋ, ㅅ, ㅆ, ㅇ, ㅈ, ㅊ, ㅋ
- 1 = 24자

이렇게 4자가 사라졌죠.

한글이 얼마나 사용하기 쉬우며 우수한 글자인지는 영어와 비교해보면 잘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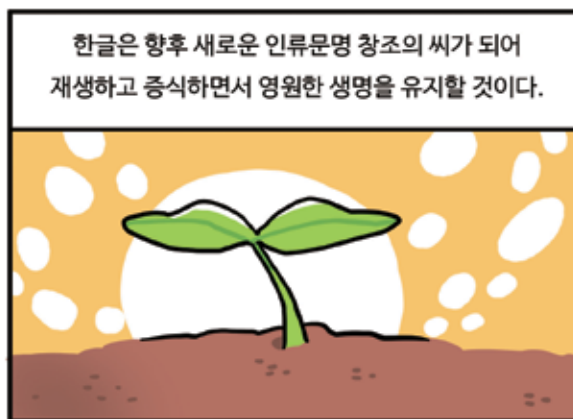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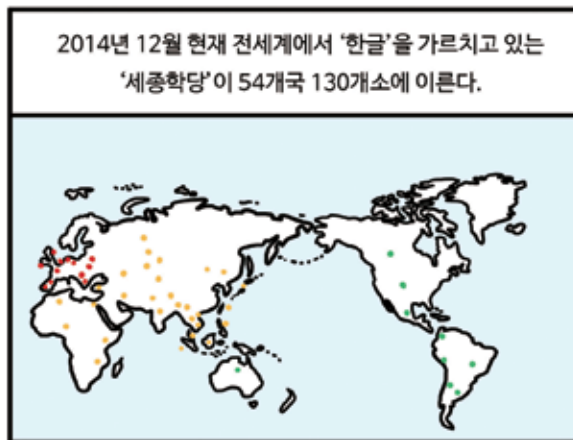
[eɪ]	[e]
[a:]	[aɪ]
[ae]	:
[ə]	:

영어의 경우, A에는 9가지 소리가 있지만

한글은 하나의 글자를 한가지 소리만으로 발음하기 때문에 소리내는데 어려움이 없다.



아!





기관, 단체 및 가정에서의 태극기와 무궁화

태극기와 무궁화는 국경일뿐 아니라 단체 행사나 가정에서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단체 행사에서는 태극기를 단상에 설치하고, 무궁화 꽃은 행사 내빈을 위한 예우로 가슴에 달기도 합니다. 무궁화 그림을 액자에 넣어 벽에 걸어 놓은 가정도 있습니다. 무궁화는 아파트 단지나 가정의 정원을 꾸미는 것은 물론, 학교 도서관 화단 조성용으로도 사용되고 길 가의 가로수로도 쓰입니다.





기념일, 각종 기념행사에서의 태극기와 무궁화

애국심을 크게 일으켜야 하는 국경일이나 기념일 또는 국가 행사가 있을 때 쓰입니다. 특히, 3.1절이나 광복절은 태극기와 무궁화의 의미를 더욱 크게 합니다.



2. 태극기, 애국가, 무궁화의 활용

국경일이나 각종 행사에서 우리는 태극기를 게양하고, 애국가를 부른다. 태극기와 무궁화에 관련된 아름다운 동요도 있다. 화가들은 무궁화를 곱게 그려내기도 한다. 또한 태극기와 무궁화는 디자이너들에 의해 의상이나 소품 속에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다. 덕분에 태극기와 무궁화가 더욱 친근하게 느껴진다. 이 밖에도 우리 생활 속에는 태극기와 무궁화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

꼭 알아두기

1. 생활 속 태극기와 무궁화 재발견
2. 애국가 4절까지 바르게 부르기
3. 태극기와 무궁화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보기



애국심과 단결의 구심점

태극기와 무궁화, 애국가는 올림픽, 개막식 공연 및 시상식, 월드컵 등 여러 행사에 활용하고 울려 퍼지는 애국가는 가슴 뭉클하게 하며 나라사랑하는 정신을 일깨워 줍니다.





생활 속에 친근한 태극기와 무궁화

태극기나 무궁화는 아름답기 때문에 디자인에 많이 쓰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점차 친근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적용활동

태극기 · 무궁화 도안을 활용해 나만의 작품을 만들어 보자.



태극기와 무궁화 노래

휘날리는 태극기

행진곡풍으로

정동주 작사
정동주 작곡

1. 휘 날 리 는 태 극 기 는 우 리 들 의 표 상 이 다
2. 휘 날 리 는 태 극 기 는 우 리 들 의 표 상 이 다
3. 휘 날 리 는 태 극 기 는 우 리 들 의 표 상 이 다

힘 차 - 게 약 진 하 는 우 리 대 한 민 국 이 다
유 구 하 고 청 사 하 는 반 만 년 의 무 궁 화 꽃
대 한 의 아 들 아 땀 아 땀 아

니 도 나 도 손 을 잡 고 광 명 으 로 보 존 하 자 청 년
송 - 고 한 금 수 강 산 자 손 만 대 계 승 하 자 나 가
단 일 민 족 한 핏 줄 기 길 이 길 이 어 가 자 나 가

아 나 가 자 민 국 - 번 영 에 힘 차
자 겨 레 야 국 토 - 통 일 에
용 사 야 국 수 호 에

게 - 울 리 어 라 평 - 화 의 종 을 우 리
는 백 의 민 족 단 군 - 의 자 손

무 궁 화

Moderato 보통 빠르게

김한배 작사
정세문 작곡

1. 아 름답 - 다 - 무 궁 화 우 - 리 - 의 - 무 궁 화
1. 정 - 답 - 다 - 무 궁 화 우 - 리 - 의 - 무 궁 화

금 수 강 - 산 - 삼 천 리 곶 게 피 - 어 - 서 -
울 밀 에 나 들 에 나 나 고 또 나 서 -

즐 거 우 - 나 - 슬 프 나 한 결 같 - 게 - 도 -
리 나 - 라 - 역 사 와 영 원 히 - 자 - 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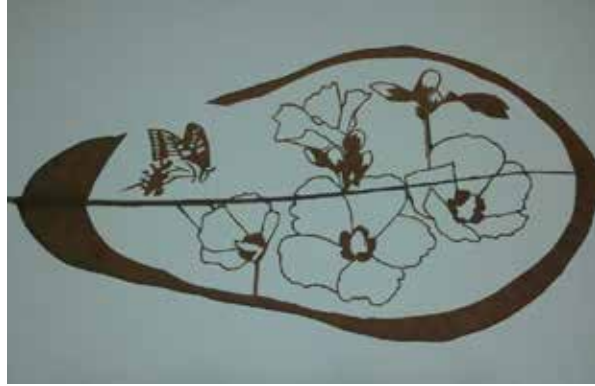
아 - 단 군 님 의 마 음 씨 무 궁 화 - 라 - 네 -
아 - 우 리 겨 레 마 음 씨 무 궁 화 - 라 - 네 -



작품 속의 태극기와 무궁화



태극무늬와 무궁화가 표현된 작품





책임을 다하며 나라사랑하는 국민









3. 내가 그린 태극기와 무궁화

지금까지 태극기와 무궁화에 대해 알아 보았다. 다양하게 우리 생활 속에 활용되고 있는 태극기와 무궁화. 나는 태극기와 무궁화를 보지 않고 그릴 수 있을까? 나도 태극기와 무궁화를 응용하여 예쁜 캐릭터를 만들 수 있을까?



1. 넓은 바탕을 먼저 색칠하고 세부 표현하기
2. 태극기 위치와 무궁화 형태 파악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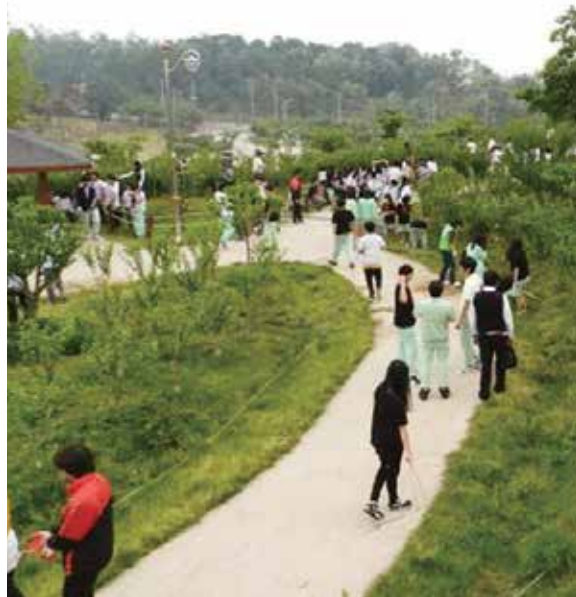
우리와 함께하는 태극기 무궁화

태극기는 바르게 게양하고 소중히 다루어야 하며, 많은 비나 바람이 부는 날씨에는 게양하지 않으며, 태극기가 더럽혀졌을 때는 손상되지 않도록 잘 세탁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태극기를 게양할 때는 4괘의 위치가 바뀌지 않게 주의해야 하며, 애국가에 다른 가사를 붙여 부르거나, 가락을 변경하여 불러서는 안 되며, 애국가를 부를 때에는 경건한 마음으로 부른다.

무궁화는 관심을 가지고 잘 기르며 꺾어서 장난치지 않고 잘 가꾸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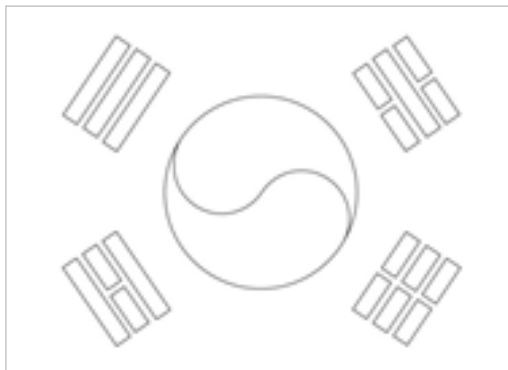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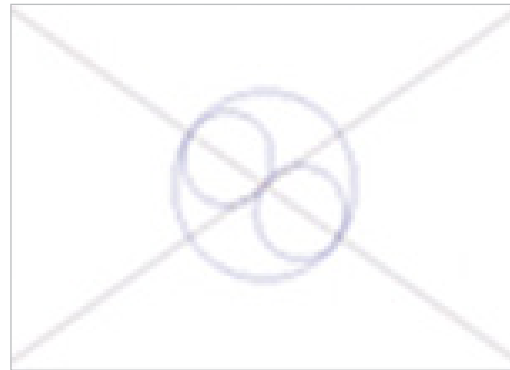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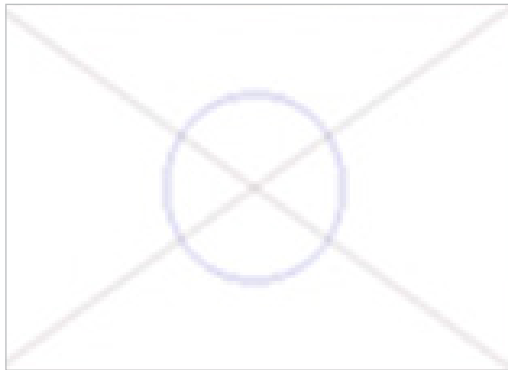
또한 무궁화의 이로운 점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우리 모두 무궁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자.





태극기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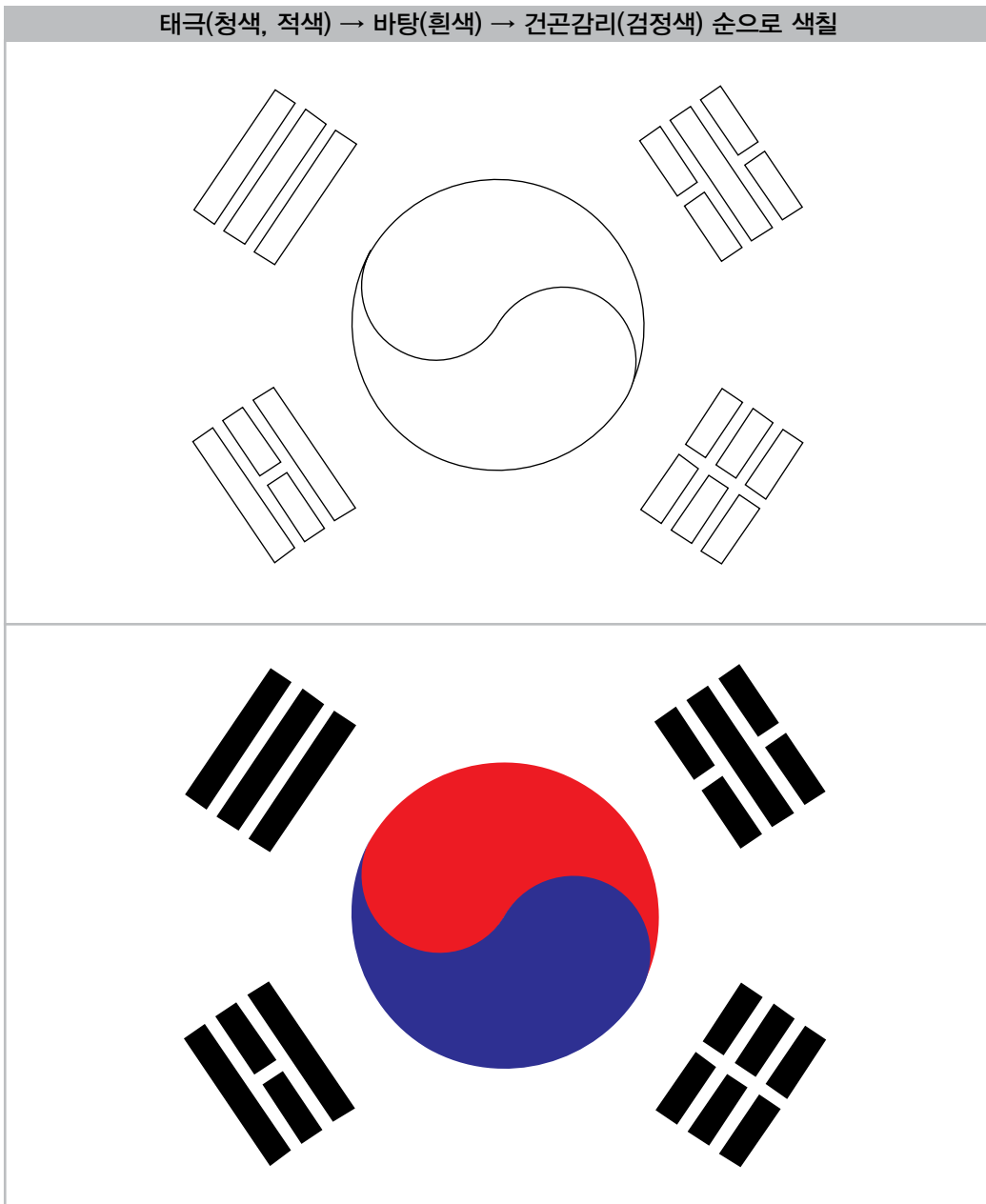
도화지 준비- 태극원 그리기- 건곤감리 그리기-색칠하기- 막대에 붙이기





태극기 채색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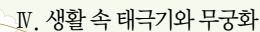
태극(청색, 적색) → 바탕(흰색) → 건곤감리(검정색) 순으로 색칠





씩씩한 태극이가 되도록 그려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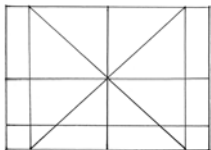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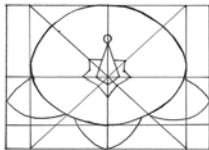


무궁화 그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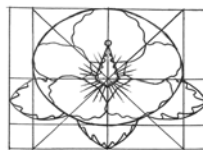
1)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위치 잡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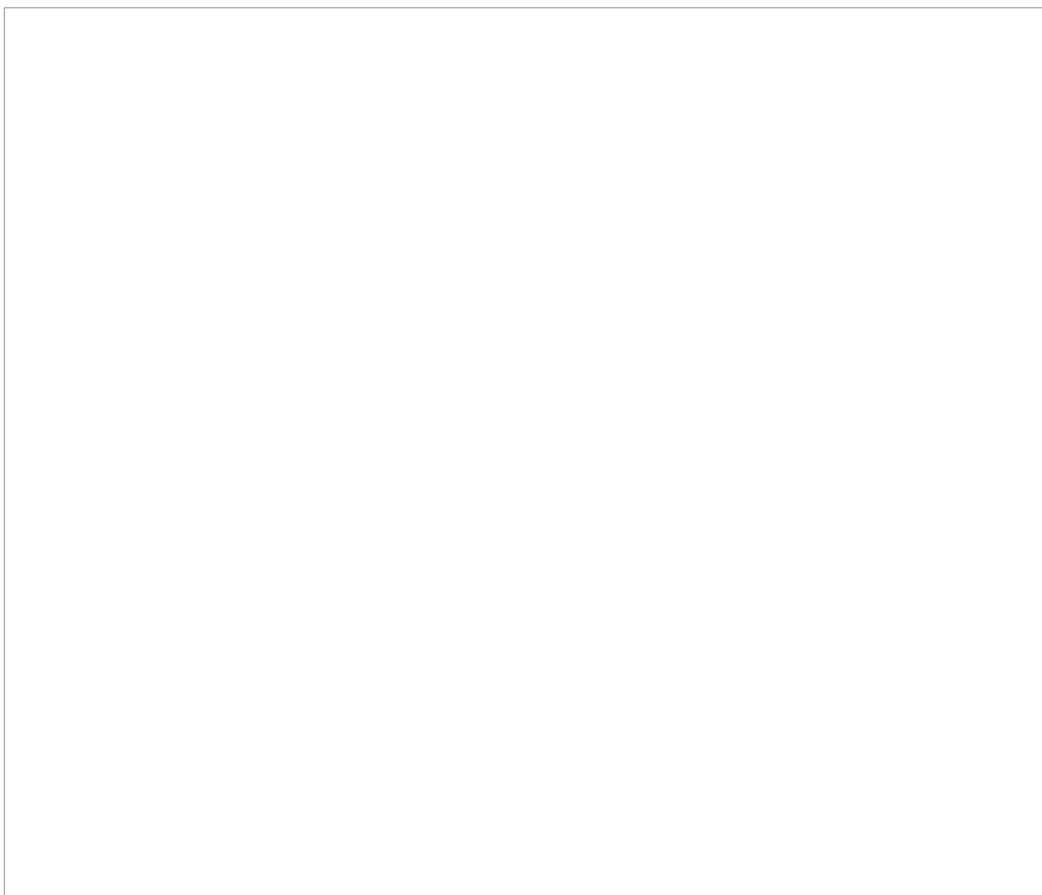
2) 꽃과 잎 위치 잡기



3) 꽃과 잎 그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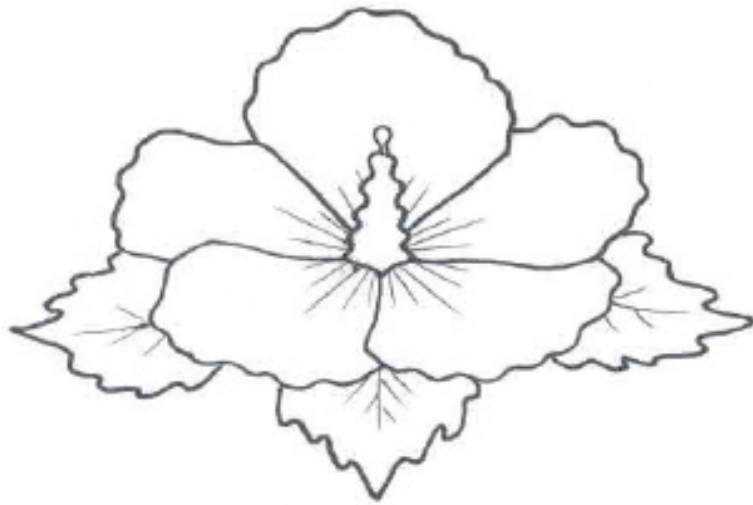
4) 완성





무궁화 채색하기

채색은 꽃잎 → 잎 → 꽃술 순서로 채색한다.



미그림



완성



깜찍한 무궁이가 되도록 그려보자





느낌과 생각을 글로 적어보기②

V. 독도 바로알기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

독도에 대해 알아보까요?

독도는 우리나라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곳입니다.
맑은 날에는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입니다.





독도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

독도는 우리나라 동해의 울릉도에서 남동쪽으로 87.4km 떨어져 있으며 동경 131도 51분 54.6초, 북위 37도 14분 26.8초에 있는 섬입니다.



행정구역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 이사부길(동도), 독도 안용복길(서도)입니다.



독도의 사계절과 동·식물

독도 사철나무는 독도에서 자생하고 있는 수목 중 가장 오래된 나무입니다.

독도는 따뜻하며 눈 비오는 날이 많고 바람이 많이 불고 겨울에는 눈이 많이 내립니다.

섬이 급경사를 이루어 비가 오더라도 쉽게 흘러가기 때문에 토양이 건조한 편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도 독도에서는 현재 50 ~ 60여 종 내외의 식물이 살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식물에는 억새나 산조팝과 같은 벼과식물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본초류는 민들레, 갯이밥, 솔파랭이, 질경이, 번행초, 완해국 등이며 목본류로는 곰솔, 섬괴불나무, 붉은가시딸기, 동백 등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조류는 바다제비, 습새, 갯이갈매기, 황조롱이, 물수리, 노란지바퀴, 흰갈매기, 딱새 등 22종의 조류가 관찰되었으며, 이중에 바다제비, 습새, 갯이갈매기는 독도에 서식하는 대표 조류입니다.



황 새



흑비둘기



갯이갈매기



새 매



딱 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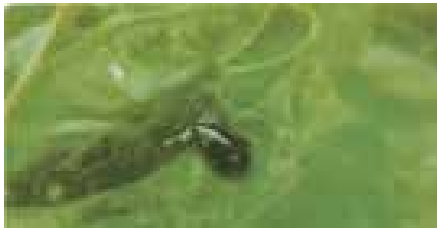


갯이갈매기 알



독도의 주변은 황금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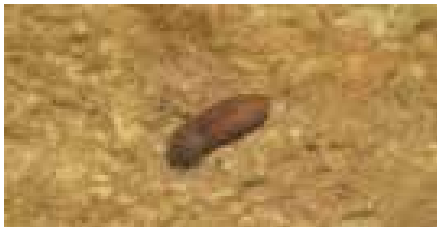
독도는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곳으로 플랑크톤이 풍부한 황금어장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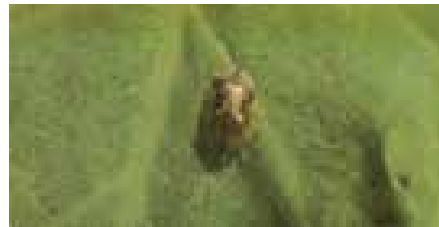
검정배줄벼룩잎벌레



긴뺨모래거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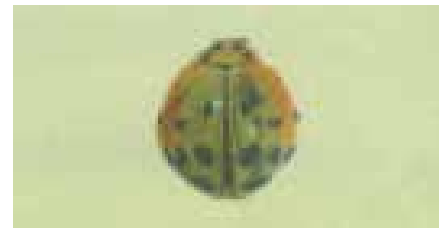
해변애녹슬은방아벌레



애남생이잎벌레



참소리쟁이애좁쌀바구미



소나무무당벌레

독도는 연중 대부분 난류수의 영향을 받으며, 또한 난류와 한류가 교차하고 있어 다양한 어종이 모여드는 황금어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해조류로는 미역, 다시마, 파래가 서식하고 있고, 어류로는 오징어, 꽁치, 방어, 북어, 전어, 가자미 등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복, 소라, 홍합 등의 조개류와 해삼 새우, 홍게 등이 있습니다.



독도의 자연자원

울릉도에서 독도 북서쪽에 이르는 일대의 울릉분지에는 하이드레이트가 대량 매장되어 있습니다.



하이드레이트는 메탄이 주성분인 천연가스가 얼음처럼 고체화 된 상태로 바다속에서는 얼음상태로 있다가 공기 중으로 나오면 기체로 변합니다. 하이드레이트는 메탄을 주성분으로 응고되어 있어 메탄하이드레이트라고도 부릅니다.

대체로 300m정도 바다 밑에 있습니다. 다른 화석연료에 비해 환경오염의 피해가 적어 청정에너지 자원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스 소비량을 기준으로 3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으로 250조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독도주변 바다밑에는 우리나라가 전량 수입하고 있는 인삼염광물도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약 2억톤 이상이 울릉도 독도 부근 바다속에는 해양심층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해양심층수는 차가운 수온과 광합성 활동이 일어나지 않아 물속에 유기물질이 없기 때문에 주로 음료수, 주류, 식재료로 쓰이며 소금과 화장품을 만드는데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독도를 지킨 사람들

안용복은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인들의 불법행위를 꾸짖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인물들이 많이 계십니다. 두번씩이나 일본에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임을 분명히 밝힌 안용복. 독도의 침탈을 막아낸 독도 의용수비대. 등대원 그리고 독도 주민들이 한결같이 지켜왔습니다.

조선 시대 때의 일입니다. 울릉도 사람들은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는 일본인들 때문에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일본인들은 나무를 함부로 베어 가고, 울릉도 앞 바다에서 활개 치며 고기를 잡았습니다.

“여기는 조선의 바다다! 일본인은 일본으로 돌아가라!”

일본 어부에게 호통 친 청년은 안용복이었습니다. 안용복은 동래부 사람으로 울릉도 근처에 고기잡이를 갔다가 일본 어부들을 발견하고 불법조업을 꾸짖었던 것입니다.

일본 어선은 7척이나 되었고, 일본 어부들이 숫자도 많았지만 안용복은 눈 하나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본에 어부들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갔고 일본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땅이니, 이를 인정하는 문서를 쓰라고 호통을 쳤던 것입니다.

일본의 호키 태수는 안용복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알…… 알겠소.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 땅임이 분명하오.”

일본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이라고 확인한 문서를 받아온 안용복은 동래부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일본 배들이 조선 땅에 들어와 마음대로 고기잡이를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오!”

안용복의 강력한 항의에 일본 태수는 정중히 사과를 하며 다시는 울릉도를 침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평범한 어부였던 안용복은 조선의 높은 관리들도 하지 못했던 중요한 일을 해낸 것입니다.



독도를 지킨 사람들

홍순철은 독도의용수비대를 조직하고 독도를 지켜냈습니다.



안용복 동상



독도의용수비대



홍순철 대장



태극기 무궁화 독도 박물관(화계중학교)

그 동안 울릉도와 독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인물들이 많습니다.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임을 분명히 밝힌 안용복, 독도의 침탈을 막아낸 독도의용수비대, 독도 주민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한결같이 지켜왔습니다.

울릉도에 있는 독도박물관을 비롯, 전국 각지에 독도가 우리나라 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전시하는 박물관과 전시장이 설립되고 있습니다.



독도의 옛 지명

독도라는 행정지명은 1905년 대한제국 울도군수 심흥택이 처음 사용 했습니다.



심흥택의 보고서

광무 10년(1905) 4월 29일
조정에 올리는 심흥택의 보
고서에 독도의 명칭이 등장
한다.

예전에는 독도를 삼봉도, 가지도, 석도, 돌섬, 독섬이라고 불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 성종 때에는 삼봉도, 정조 때에는 가지도, 대한제국 시절에는 석도(石島), 돌섬, 독섬 등으로 불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석도는 돌로된 섬이라는 뜻이고, 독은 돌의 사투리이므로 석도, 돌섬, 독섬은 발음은 다르지만 모두 같은 뜻입니다.

당시 울릉도에서는 석도, 돌섬, 독섬이 혼용되었는데 1905년 울도군수 심흥택이 보고서에 독도(獨島)라고 표기했습니다.

지금의 울릉도는 당시에는 울도군이었습니다.



독도는 침략의 첫 희생물

일본이 국제법상 불법으로 시마네현으로 편입했었지만 1945년 광복으로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로 귀속되었습니다.



한반도와 울릉도 및 독도의 위치

신라, 고려, 조선 그리고 대한제국으로 이어진 오랜 역사 속에서 독도는 우리 민족 국가들의 영토였습니다.

독도는 대한민국과 일본국 중간에 위치하지 않고, 대한민국 울릉도에 속해 있는 섬입니다.

독도와 울릉도는 한 덩어리인 해산이며 바다 밑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독도 주변 바다 속에는 경제성 있는 광물 자원들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1905년 일본이 국제법상 불법으로 독도를 일본의 시마네현으로 편입했었지만 독도는 광복으로 대한민국 소유로 귀속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본은 자기들 나름의 억지 논리를 펴면서 끊임없이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한제국 침략은 계획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1904년 한일의정서 체결로 대한제국을 통치할 수 있는 권력을 장악했고, 1905년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하여 독도를 시마네현으로 불법 편입했고 1910년 마침내 대한제국을 일본에 불법으로 강제 병합했습니다.

독도는 일본의 대한제국 침략의 첫 희생물이었던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근거

대한제국 광무4년에 칙령41호를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울릉도와 독도가 대한 제국의 영토임을 국제법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대한제국 칙령 41호

첫째 고지도 고문헌을 통해서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조선 중종 25년(1530)에 완성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팔도총도를 보면 독도가 우리나라 땅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제국 광무 3년(1899)에 발행된 대한제국 전도에는 울진군 동쪽에 울릉도와 우산도(독도)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둘째 대한제국 광무4년(1900)에 칙령 41호에 울릉도와 독도가 대한제국 영토임을 명시하고 관보를 통해 알림으로써 울릉도와 독도가 대한제국 영토로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칙령 41호를 통해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격상하고 당시 도감을 군수로 승격시키면서 울도군의 관할 지역을 울릉도, 죽도, 석도로 했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 대한민국 영토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는 영토라고 일본 최고 국가기관인 태정관에서 공식 확인한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첫째 독도는 울릉도와 87.4km 떨어져 있으며, 일본에서 가장 가까운 섬인 오키섬과의 거리는 157.5km로 울릉도와 독도의 거리가 70.1km 더 가깝습니다.

독도에서 울릉도를 볼 수 있지만 오키섬은 볼 수 없습니다.

둘째 일본에서 1779년 발행된 개정일본여지도로정전도를 보면 채색된 일본 영토와 달리 울릉도와 독도는 채색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1877년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 관계가 없는 영토라고 일본 최고 국가기관인 태정관에서는 공식 확인했습니다.

셋째 독도는 현재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으로 국민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태정관 지령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일본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로 회귀하려 하고 있습니다.

1910년 일본에 나라를 빼앗겼던 우리민족은 일제의 압박과 탄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일제는 우리글과 말을 없애려고 했고 광물자원, 식량, 산림자원 등 우리의 재산을 빼앗아가 우리 선조들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며 힘든 삶을 살아 가야 했습니다.

일제의 잔혹하고 비 인륜적인 탄압에 항거하면서 나라를 되찾겠다고 독립운동을 하시던 독립투사들을 옥에 가두고 갖은 고문을 자행함으로써 희생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온 천하가 알고 있습니다.

청나라와 일본의 전쟁,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미국과 전쟁을 하던 중 미국이 일본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을 투하하여 일본은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하였습니다.

일본 패망으로 인하여 우리는 광복 되었고 8.15 광복절은 바로 우리의 광복을 기념하기 위하여 만든 기념일입니다.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은 광복절입니다.

일본은 지금도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역사 왜곡을 하며 잘못된 과거를 정당화하기에 여념이 없고, 다시 전쟁을 일삼던 과거의 군국주의로 회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이 억지를 쓰며 독도를 빼앗으려는 이러한 때에 독도가 왜 우리나라 땅인지 독도에 대해서 바로 알고 그들의 잘못된 주장에 대해 우리 땅의 확실한 근거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



울릉도 독도 예찬시

아! 독도여

아, 내 사랑 독도여
 오천년 동안 우리 민족의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숨 쉬며
 눈보라치던 날 밤에도 외로움에 떨고
 추위에 떨면서도
 오직 나의 조국을 걱정하며 흐느끼던 너.
 형제끼리
 오손도손 모여 앉아
 조국통일 걱정하며
 무궁화 꽃
 흐드러지게 피어오른 그 향기에 취해서
 대한민국 만세 부르네.

시인 최봉실

독도야 독도야 사랑해

저 기 저 먼- 바다
 푸른 동해에 우뚝 솟아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아침을 맞이하는 곳
 아름다운 섬! 독도
 독도는 동해의 깊은 바다 밑바닥에서
 불쑥 불쑥 솟아오른 용암이
 오랜 세월을 거쳐 굳어진 바위섬
 동도와 서도의 이름을 지닌
 독도야 독도야 사랑해

시인 천선녀



우리땅 독도





우리땅 독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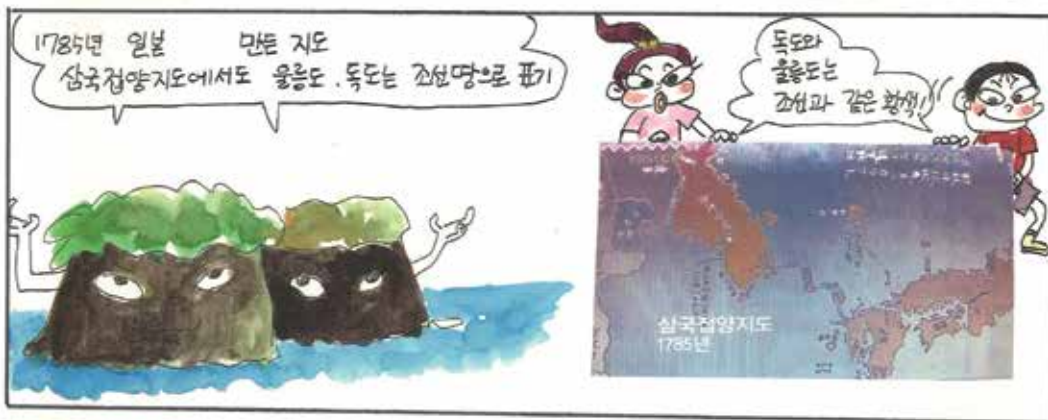




우리땅 독도



우리땅 독도





우리땅 독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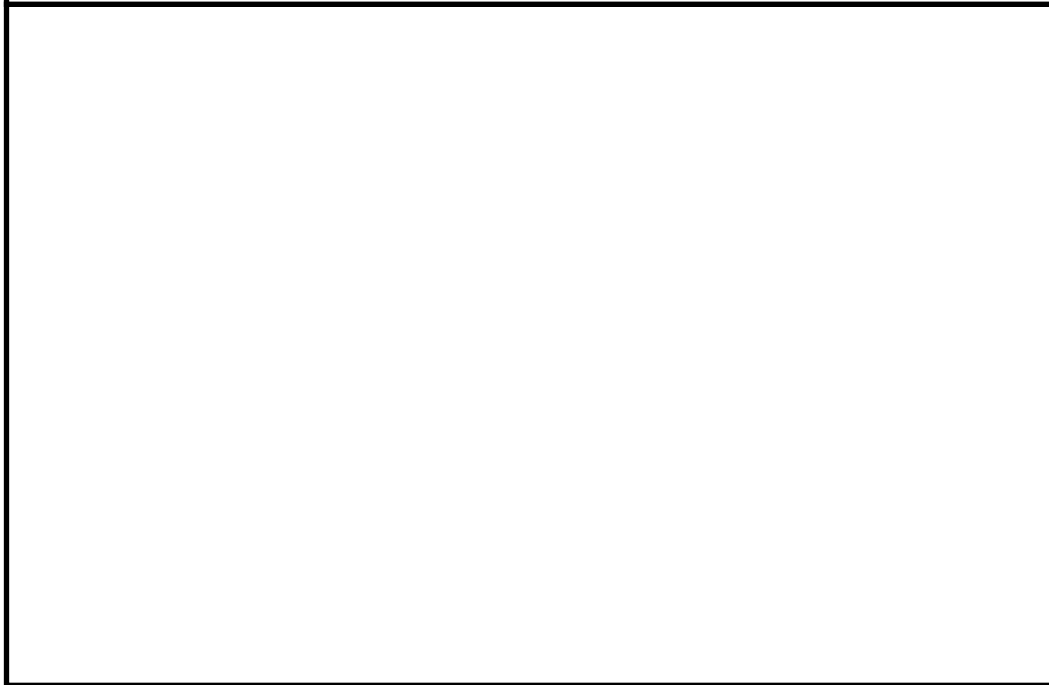


우리땅 독도





독도그림 그리기





〈참고문헌, 자료제공, 인용〉

- 무궁화 화가 / 한국예술문화명인 김종희
- 무궁화연대
- (사)한국무궁화연구회
- (사)한국고유문화콘텐츠진흥회
- 행정자치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 산림지원육성부
- 나라꽃 무궁화 (한국교육연구소)
- 손기정 기념재단
- 한국기독교 지도자 작품선집 (남궁억)
- 민족얼 바로알기 무궁화기적 (무궁화보급본부)
- 한국 나라꽃 (지림출판사)
- (사)무궁화 사랑
- 문 박사의 태극기 이야기 (미술문화)
- 국립산림과학원
- 무궁화대전 (용진민족문화연구원)
- (사)대한민국무궁화미술대전위원회
- 위대한 무궁화 인성교육 (작가 이재원)
- 한류문화협회 (회장 조달호)
- 국립민속박물관한국세시풍속사전
- 문경옛길박물관
- 한서 감리교회 (목사 현재호)
- 문화재청 홈페이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연구위원

서영훈 (전. 대한적십자사 총재)
 ((사)대한민국무궁화미술대전위원회 회장)
 한승헌 (전 감사원장)
 손봉호 (전 동덕여자대학교 총장)
 정길생 (전 건국대학교 총장)
 김원경 (전 서울교육대학교 총장)
 윤경로 (전 한성대학교 총장)
 박인주 (전 청화대시민사회수석)
 신미녀 (새조위 상임대표)
 정덕환 (에덴복지재단 이사장)
 반재철 (전 흥사단 이사장)
 이현만 (한림중, 실업고등학교 교장)
 유병석 (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이종찬 (우당 기념관장)
 박홍갑 (전 국사편찬위원회 부장)
 정범모 (전 충북대학교, 한림대학교 총장)

■ 감수위원

곽혜경 (자양중학교 교사), 기미라 (화계중학교 교사)
 박대열 (광장중학교 교사), 우윤식 (화계중학교 교사)
 이강희 (자양중학교 교사), 이은영 (장위중학교 교사)
 장영태 (자양중학교 교사), 주항금 (장위중학교 교사)

■ 심사위원

조정기(풍남중학교 교사), 이경숙(동원중학교 교사)
 정 결(신사중학교 교사)

■ 사 진

류병열 (삼육대학교 교수)
 윤광섭 (삼육대학교 명예교수)

■ 동 화

고정욱 (작가)

■ 만 화

손재수(일러스트톤:유승호, 강복선, 두혜진), 이하연
 이진수, 김성수((사)대한민국무궁화미술대전위원회
 경기도지부장)

■ 윤 문

강순예 (국어문화운동본부)

■ 집필위원

김종현 (전. 화계중학교 교장)
 배선장 (태극기무궁화선양회 사무총장)
 진기문 (자양중학교 교장)
 이병화 (태극기무궁화선양회 고문)
 김종희 ((사)대한민국무궁화미술대전위원회 부이사장)
 노유경 (화계중학교 교장)
 채태병 ((사)대한민국무궁화미술대전위원회 서울시지부장)

■ 기획위원

오의교 (31민족선양회 회장)
 박익동 (화계중학교 교감)
 정해오 (태극기· 무궁화선양회 운영위원)
 최진용 (태극기· 무궁화선양회 운영위원)
 김순호 (태극기· 무궁화선양회 운영위원)
 이동기 (태극기· 무궁화선양회 운영위원)
 이승로 (태극기· 무궁화선양회 운영위원)
 이석우 ((사)대한민국무궁화미술대전 경기도상임이사)
 김갑재 ((사)대한민국무궁화미술대전위원회 이사)

■ 캐릭터

차재현 ((사) 한국캐릭터협회 이사)

■ 편집 및 디자인

추재호, 유택중, 심원철, 이숙영

■ 발행인

서영훈 한국태극기무궁화사랑국민운동협의회 회장
 (사)대한민국무궁화미술대전위원회 회장
 최봉실 한국태극기무궁화사랑국민운동협의회 이사장
 (사)대한민국무궁화미술대전위원회 이사장
 태극기무궁화선양회 상임대표

■ 출판사 및 저작권

도서출판 광미사 (대표 최봉실)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11, 프린스텔909

■ 전화 / 팩스

02-703-6793 / 02-703-6794

■ 발행일

2015년 2월 10일

● 중학교 태극기· 무궁화는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2015년 2월 10일 인정승인 하였음.

※ 내용 및 구입관련 문의 : 도서출판 광미출판사 (전화 : 02-703-6793)

※ 저작물 보상금 지급 : (사)대한민국무궁화미술대전위원회 (02-703-6793, www.kmae.or.kr)

※ 교과서 관련 문의사항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 (1566-8572)

(<http://www.textbook114.com> 또는 <http://교과서.114.com>)

※ ISBN 979-11-954588-0-6 (53370)

